



금강산

10

2025년

루계 제434호 월간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오늘의 조국사 2025 ISSN 1727—9062



표지: 백두산에 올라

지난 8월 중순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단 성원들이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올랐다.

그들은 백두산정에서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애국성업에 자신들의 모든것을 바쳐나갈 맹세를 다지였다.

사진 김영호

조선로동당창건 80돐을 맞으며

4 || 인민을 받들어 80년

10 || 당창건사적관

일화

12 || 당의 강화발전을 위한 나날에

수필

13 ||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14 || 은혜로운 당의 품

16 || 일심단결을 실현한 당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린 선물

17 || 수지공예 《송학연년》과 《호박》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중에서

18 || 낮에는 적의 세상, 밤이면 우리 세상

고국방문

20 || 가리라 백두산으로

인상기

24 || 백두의 혁명정신을 새기며

24 || 생생한 체험으로

24 || 조국을 보았다



편지

25 || 가풍을 잊지 말고

고향소식

26 || 더 좋은 래일을 마증가는 해안도시

조국의 품에 안겨

30 || 공민적의무로 이어지는 애국의 대

32 || 장수고려약공장

34 || 기능성제품개발에 주력하여

35 || 방직설비들의 현대화에 힘을 넣어

36 || 누구나 즐겨 찾는 중앙동물원

42 || 관광부문의 전문가들로

44 || 한 학생을 위해 바쳐진 7000여일

46 || 조선옷의 특성을 살려

48 || 삼계탕식당

취재길에서 만난 사람들

50 || 로화가들

52 || 고유한 조선춤동작과 《조선민족무용기본》

지명유래

53 || 개천시

54 || 첫 고대국가를 세운 단군

55 || 고구려사람들의 용맹

56 || 세계지질공원 백두산지구 (2)

편집: 김광수, 최은혁, 서철남, 문송연

1945. 10. 10.

최장의 사회주의집권당력사에 승리와 영광의 빛나는 자욱을 새겨준
조선로동당이 창건 80돐을 맞이하고있다.

우리 공화국이 진정한 인민의 나라로 첫 자욱을 띄고 장장 수십성상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정책을 세우고 활동할수 있는것은
조선로동당만이 이룩할수 있는 력사의 기적이다.





김책군 상평농업협동조합원들과 담화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1959년 3월



녀성로동자를 만나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2000년 1월

인민을 받들어 80년

조선로동당이 자기의 붉은 기폭에 마치고 낮과 밤을 아로새긴 때로부터 장장 80년!
80년의 장구한 로정은 《인민》이라는 두 글자와 함께 찬연히 빛나고있다.

창당의 리념

어느 나라 당이나 할것없이 창당의 리념은 당의 존재와 발전에서 가장 결정적이며 주되는 요인으로 되고있다. 왜냐하면 그것에 당의 력사적시원과 본태가 조명되기때문이다.

조선로동당의 창당리념, 창당정신에서 진수를 이루는것은 인민대중제일주의이다.

인민대중제일주의는 그대로 풀이하면 인민대중의 존엄과 권익을 절대적으로 옹호하고 인민대중에게 철저히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한다는것이다.

조선로동당의 창건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있어서 인민은 하늘이었다.

지난날 수난과 설움의 대명사로 되어있던 인민의 운명전환을 위하여, 인민의 리상실현을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강위력한 혁명의 전위대를 가져야 할 필요성을 느끼시였고 해방 직후 건국, 건군건설에 앞서 1945년 10월 10일 근로인민의 대중적당인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였다.

당이 창건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가혹한 천대와 멸시에서 벗어나 당당한 존엄과 권리의 대표자



육류아동병원을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2014년 3월

로, 가장 힘있는 력사발전의 주체로 극적인 운명 전환을 하였으며 나라의 주인으로 되었다.

우리 당은 창당의 첫 기슭에서부터 그 인민을 위한 복무의 길만을 걸어왔다.

시기시기 제시되는 하나의 로선과 정책에도 인민들의 목소리와 요구가 속속 반영되었고 당과 국가건설에서 인민적인것이 우선시되었다.

해방후 토지개혁으로부터 시작하여 무료교육,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 등 년대와 시대를 이어 오며 당이 내놓은 모든 로선과 정책에는 인민의 요구와 의사가 그대로 반영되어있는것으로 하여 근로대중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다.

당은 언제나 인민을 선생으로, 훌륭한 지지자, 조언자로 여기었으며 혁명앞에 난국이 조성될

때면 그 해결방도를 인민대중속에서 찾았다.

그 대표적실례가 강선의 로동계급에 대한 이야기이다.

1956년 12월 이른아침 나라의 긴장한 강제 문제를 풀기 위하여 강선제강소(당시)를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곳의 로동자들과 허물없이 무릎을 마주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로동자들에게 나라가 처한 어려운 형편을 알려주시고 동무들이 다음해에 강재를 1만t만 더 생산하면 나라가 허리를 펼수 있다고 하시면서 그 방도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토론하시였다.

그이의 믿음에 강선의 로동계급은 강철증산으로 보답할 굳은 맹세를 다지였으며 소극성, 보수주의,

기술신비주의를 타파하고 년산 6만t능력의 분과 압연기에서 결의한 9만t보다도 3만t이나 더 많은 12만t의 강편을 밀어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당을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어머니당으로 건설하시였다. 당은 인민대중의 운명을 책임지고 이끌어나가는 참다운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는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 이였다.

하나의 창조물을 보시여도 인민들이 좋아하는가부터 헤아리시였으며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인민을 찾아 멀고 험한 길을 쉬임없이 걸으신분이 위대한 장군님이다. 뿐만아니라 전당이 군중 속에 들어가 인민을 위해 복무하도록 하시여 우리 당을 인민과 하나의 전일체를 이룬 일심 단결의 당, 강철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그이께서 제시하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해!》, 《전당이 군중속에 들어가자!》라는 구호 밑에 일군들은 항상 인민들속에 들어가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면서 승리와 번영의 길을 함께 열어나갔다.

하여 모든 당사업과 당활동이 철두철미 인민을 위하는데로 지향복종되고 우리 당은 참다운 어머니당으로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그들과 한덩어리가 된 대중적당으로, 창당의 리념에 충실한 당으로 강화발전될수 있었다.



혁신한 자연재해를 입었던 평안북도의 수해지역에 농촌문화도시가 준비하게 솟아올랐다.

계승되는 본래 돌이켜보면 당의 집권력사가 오래고 과거의 훌륭한 전통이 있다고 하여 그 계승과 순결성이 저절로 해결되는것은 아니다.

국가존립의 근본인 인민을 무시한 당은 레외 없이 인민의 신뢰를 잃고 령도력을 상실하며 변색, 탈색되어 선대수령들의 사상과 업적도 말아먹고 종당에는 사멸되고만다는것이 세계 사회주의집권당력사가 새겨주는 교훈이다.

최장의 사회주의집권사를 기록하고있는 조선로동당은 자그마한 탈선도 없이 창당의 리념과 정신을 변함없이 고수해오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이민위천의 사상을 굳건히 계승하여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의 려정을 끊임 없이 이어가신다.

당을 위하여 인민이 있는것이 아니라 인민을 위하여 당이 있다는것이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절대불변의 의지이다.

그이께서는 우리 당의 최고의 징표는 인민의 당이라는 정식화로써 조선로동당이야말로 진정으로 인민을 위하고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는 어머니당임을 다시금 명백히 천명 하시였다.

그이께서 늘 강조하신것은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할데 대한 문제였고 일군들에게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첫해 과업이 빛나게 완결되어 전국의 20개 시, 군들에 현대적인 지방공업 공장들이 일떠섰다.



강동종합온실농장



광천담공장

간곡히 당부하신것도 인민을 존중하고 인민의 운명을 지켜주며 인민을 위하여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데 대한것이였다.

모든것을 인민을 중심에 놓고 대하시는 그이의 사색과 로고에 의하여 김일성-김정일주의의가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제일주의이며 우리 당의 존재방식도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에 있다는 사상이 제시되고 일군들의 사고관점과 태도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듯이 인민을 받들어나가는데로 확고히 지향되고있다.

그이께서는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전당이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자!》라는 구호를 제시하시여 조선로동당건설과 당활동전반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해나가도록 하시였다.

하기에 우리 당은 인민의 운명과 생활을 떠나서 자기의 존재와 혁명의 진일보에 대하여 단 한시도 생각해본적이 없다.

조성된 혁명정세의 요구에 맞게 자립경제의 토대와 잠재력을 더욱 튼튼히 다지며 인민대중제일주의의 기치높이 인민의 존엄과 권익을 최우선, 절대시하고 인민생활향상의 활로를 열어 나가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된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13차 정치국회의, 악성비루스전염병으로부터 우리 인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고 인민들에게 하루 빨리 최상급의 의료봉사조건을 마련해주려는 당의 결심과 의지가 비낀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14차 정치국 확대회의,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전원회의...

그이께서 여러 당회의에서 절절하게 강조하신것은 조선로동당이 오직 위대한 우리 인민을 위하여 복무할데 대한 사상이였다.

존재명분도 인민을 위함에 두고 존재방식도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이기에 오늘 우리 당은 아직은 나라의 경제형편이 순탄치 못하고 여력을 내기도 힘든 조건이지만 인민의 숙원을 위한 사업들을 강력히 전개해나가고있다.

지구상의 수많은 시청자들이 목격한 그대로 건국이래 대동란으로 닳친 세계적인 악성전염병

위기극복상황과정과 지난해 평안북도를 비롯한 여러 지역의 큰물피해복구전역들에서 발휘된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의 화폭들은 력사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것이였다.

가장 어려운 속에서도 수도시민들을 위한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의 구상과 강력한 추진, 막대한 국가적투자로 현대적인 살림집들을 지어 근로자들에게 무상으로 배정, 지방변혁의 새시대를 펼쳐며 각지에 일떠선 지방공업공장들의 실체들을 비롯하여 우리 당이 펼쳐가는 거창한

대업은 보통의 용단으로는 실행할수 없는것들이다.

오직 우리 당이 인민을 떠받들고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를 존재방식으로 내세웠기에 이러한 선택과 결실들이 가능한것이다.

하여 인민이 바라는 꿈과 리상이 글줄이나 노래로가 아니라 매 사람의 구체적인 생활에 와닿고 있으며 거창한 변혁들도 모든 사람들이 반기고 환호하는 실질적인것으로 되고있다.

하기에 어제든 그러하였지만 오늘도 인민은 당에 운명도 미래도 다 의탁하고 믿고 따르는 것이다.

인민대중속에 든든히 뿌리박고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당은 언제나 승리한다.

인민이 영원하듯이 인민을 위해 태여났고 인민을 하늘처럼 섬기며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하여 전진하는 우리 당은 인민과 더불어 영원 불멸할것이다.

글 엄향심

사진 리철, 최원철, 황정혁, 조선중앙통신



변모된 화성지구의 일부



지방진흥의 새시대와 더불어 조선동해기술에 일떠선 락원군바다양식사업소와 어촌문화주택지구

당창건사적관

평양시 중구역 해방산기슭에는 당창건사적지가 자리잡고있다.

당창건사적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45년 9월부터 1949년 1월까지의 기간에 건당, 건국, 건군의 역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신 뜻깊은 곳이다.

이곳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후 조선로동당을 창건(1945. 10. 10.)하시고 조선혁명을 승리로 령도하신 불멸의 사적이 깃들어있는 당창건사적관이 있다.

당창건사적관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후 당의 강화발전과 새 조국건설을 령도하시면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보여주는 영상사진문헌들이 정중히 모셔져있으며 그이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혁명사적물을 비롯한 많은 자료들이 전시되어있다.

2층으로 된 사적관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업하시던 2개의 집무실과 응접실, 회의실이 원상대로 보존되어있으며 여러개의 참관호실이

들이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집무실들에서 당의 강화발전과 정권건설, 민주개혁을 비롯한 많은 사업들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였다.

회의실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후 당과 정부의 주요회의들을 지도하신 불멸의 혁명사적이 깃들어있다.

응접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후 주요행사들을 지도하신 불멸의 사적이 깃들어있는 방이다. 그이께서는 응접실에서 국내각지에서 찾아오는 사람들뿐 아니라 여러 나라 대표들도 만나주시였으며 1947년 신년사도 하시였다.

사적관 1층의 1호실부터 4호실까지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형의 혁명적당을 창건하시고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새 조국건설을 위한 투쟁을 승리로 이끄신 불멸의 령도업적을 보여주는 영상사진문헌들과 력사자료들이 소중히 보관되어있다. 5호실과 6호실에는 당창건사적관을 우리 당력사의 증견자로, 혁명전통교양의 거점으로 훌륭히 꾸리도록 하여 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보여주는 영상사진문헌들과 자료들이 전시되어있다.

당창건사적관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다.

글 변진혁
사진 김영호



일 화

당의 강화발전을 위한 나날에

당의 명칭에 대해 알려주시며

1946년 7월 어느 한 회의에서였다.
회의도중에 한사람이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창립될 당이 근로대중의 이익을 대표한다고 하는데 왜 당의 명칭을 로동당이라고 부르는가고, 로동당이란 노동자들의 당이란 뜻이 아닌가고 질문을 드리였다.

질문을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가벼운 웃음을 지으시며 로동이라고 하면 흔히 공장이나 광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생각하는데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노동자는 물론 농민도 로동을 하며 사무원도 정신로동을 하고있다, 우리가 두 당을 합당하여 창립할 당은 다같이 로동에 참가하는 노동자, 농민, 지식인의 선진분자들의 조직인것만큼 그 명칭을 로동당이라고 하자는것이라고 하시였다.

그제서야 당의 명칭에 대하여 정확한 리해를 가지게 된 회의참가자들은 한결같이 정말 옳은 말씀이라고 하면서 전적인 찬성을 표시하였다.

이렇듯 우리 인민이 어머니라 부르는 조선로동당의 고귀한 명칭에는 광범한 근로인민 대중을 망라한 혁명적당으로 건설하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뜻이 그대로 어리어있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1990년 1월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일군들에게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당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당이며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은 다 인민을 위한것으로 일관되어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일군들은 언제나 군중속에 들어가 군중에게서 배우며 군중과 교락을 같이하는것을 습성화하여야 하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을 가장 큰 영예와 보람으로 여겨야 한다고, 당일군은 대중에게 호령할것이 아니라 대중의 호령을 받아야 한다고 이르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에게 충실히 복무하고 인민들로부터 지지와 사랑을 받는 일군이러야 참다운 주체형의 당일군이라고 말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일군들의 구호는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으로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참으로 인민을 세상에서 제일 힘있는 존재로 숭배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관이 집대성되어 있는 구호였다.

깊이 새겨주신 인민관

2012년 4월 어느날이였다.

이날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인민을 하늘같이 여기고 무한히 존대하고 내세워주며 인민의 요구와 이익을 첫 자리에 놓고 모든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일군들에게 당조직들은 어머니된 심정으로 언제나 사람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며 그들의 정치적생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빛내여주어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못난 자식, 말썽많은 자식이라고 하여 버리지 않고 더 걱정하고 마음을 쓰는 어머니처럼 우리 당을 사람들의 운명도 미래도 따듯이 보살펴주는 진정한 어머니의 품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는 숭고한 뜻이 담겨진 말씀이였다.

그이께서는 이날 일군들은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야 한다고, 일군을 위하여 인민이 있는것이 아니라 인민을 위하여 일군이 있다고 하시면서 일군들은 누구나 수령님식, 장군님식인민관을 따라배워 인민들과 한가마밥을 먹으면서 그들과 교락을 같이하여야 하며 인민을 위하여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어야 한다고 당부하시였다.

* * *

수 필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얼마전 어느날 저녁이였다.

집에 퇴근한 남편은 딸애의 방으로 먼저 들어가더니 가방에서 악보 한장을 꺼내주었다. 아버지에게서 악보를 받아든 딸애는 기뻐서 어쩔줄 몰라하며 나한테로 뽀르르 달려와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아버지가 새 피아노독주곡을 가져다주었어요. 자, 보세요.》

딸의 손에 들린 새 악보에서 《어머니를 사랑합니다》라는 노래제목의 글줄이 선명하게 안겨왔다.

우리 인민들이 조선로동당을 어머니로 칭송하며 부르고있는 노래는 많지만 왜서인지 나는 이 노래를 늘 즐겨 부르고있다.

잠시후 딸애가 연주하는 피아노 선율이 고요한 밤하늘가로 울려 퍼졌다.

유정한 곡조를 타고 나의 생각은 깊어갔다.

누구에게나 자기를 낳아 키워준 어머니가 있다.

이 땅에 첫 고고성을 울리며 태어난 살붙이를 열두자락 치마폭에 싸안아 더울세라 추울세라 애지중지 키워준 어머니.

따뜻한 그 사랑을 되새기느라니 저도모르게 우리 인민 모두가 어머니라 부르며 따르는 조선로동당에 대한 고마움으로 가슴이 젖어들었다.

외롭고 피로와할 때마다 고향집 친어머니와 같이 우리의 곁에 제일먼저 가까이 다가오고 이 땅에 생을 둔 누구나의 마음

속소원을 속속들이 헤아려 모든 것을 안겨주는 조선로동당.

우리 인민이 그 어느 책의 글줄에서 당의 사랑에 대하여 알았던가.

아니다. 자기의 피부로 느꼈고 생활로 절감했으며 인생의 체험으로 간직했다.

지난해 압록강기슭에 갑자기 큰물이 들이닥쳤을 때 은혜로운 당의 손길은 수재민들에게 그 누구보다 먼저 가닿았다.

어머니당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 집과 가산을 잃고 설움에 겨워해야 할 수재민들이 평양 체류의 나날을 즐겁게 보내였고 몇달후에는 살림살이에 필요한 모든것이 빠짐없이 갖추어진 황홀한 살림집을 받아안았다.

과연 무엇때문이였겠는가. 그것은 우리 당의 생명의 뿌리가 바로 인민대중이기때문이다.

우리 당은 그 어떤 주의나 권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철두철미 인민을 보호하고 정성다해 떠받들며 인민의 행복과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인민의 당, 어머니당이다.

최근년간 우리 당이 펼치는 정책만 보아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아이들에게 교복을 해입히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최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당의 정책으로 선언되고 국가적부담으로 어린이 양육을 맡아안은 육아법이 채택되였다.

중앙이 지방을 부러워하게 하고 지방의 진흥이 우리 국가

의 전진과 발전을 대표하게 하며 지방의 리상적인 면모가 우리식 사회주의의 참모습으로 되게 하는 《지방발전 20×10 정책》이 책정되어 그 실체들이 자태를 드러냈다.

어디 그뿐인가. 건설정책에 의하여 해마다 어김없이 일떠서는 1만세대 살림집들과 문명의 별천지로 떠오른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 그리고 양덕온천 문화휴양지, 문수물놀이장, 마식령스키장 등 조국땅에 일떠선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어느것이나 인민의 복리와 문명을 떠난것이 하나도 없다.

진정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창건일을 맞는 뜻깊은 10월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간직된것은 어머니당의 품,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품에서 누리는 끝없는 행복과 영광에 대한 생각뿐이다.

하기에 인민을 한품에 안아 운명을 지켜주고 보살피주며 진할줄 모르는 힘과 열정으로 인민의 존엄을 떨쳐주는 조선로동당의 명함은 티끌만한 가식도 없이 오로지 자식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깎그리 기울이는 어머니란 그 부름과 더불어 인민들속에 사랑의 대명사로 널리 불리우고있는것 이리니.

나는 온 세상이 다 들도록 이렇게 목청껏 웨치고싶다.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글 연옥

이혜려와 김의남

그 품 떠나 못살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애국자들의 동리로 불러주신 아름다운 구슬다락 경루동에 내가 보금자리를 편 때로부터 어느덧 세해가 되었다.

하지만 희한하게 꾸러진 멧쟁이 집으로 들어설 때면 나는 오늘도 정말 내 집이 웬지 웬지 하는 생각이 들곤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저택 자리에 호화주택을 짓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어떤 사람들이 경루동의 주인으로 될까 하고 생각을 해보았지만 그 주인공이 내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하였다. 왜냐하면 나는 나라를 위해 특별한 공로를 세운 사람도 아니고 그치 이 나라 어디서나 흔히 볼수 있는



로동자이기때문이였다.

살림집리용허가증을 받아안았을 때조차도 나는 정말 꿈을 꾸는것만 같았다.

나와 같은 로동자에게 무상으로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사람들도 달라지고 농촌도 원래의 모습을 찾아볼수 없게 천지개벽되였다.

오늘 우리는 영농공정의 기계화 수준을 높였을뿐 아니라 경험주의와 하늘에만 매달리던 일본새와 단호히 결별하고 과학기술을 체득한 지식형농업근로자로 성장하고있다.

올해에도 당의 뜻대로 논판에서 메기양어를 하여 1정보에서 메기를 수십t 생산하였으며 비료와 농약을 전혀 쓰지 않으면서도 흐뭇한 작황을 이룩하고있다.

이것은 농민들과 농촌의 문화생활환경을 개선시키고 농업생산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농촌문제를 중국적으로 해결하려는 우리 당의 웅대한 구상과 현명한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는것이다.

농촌진흥의 새시대를 펼쳐준

차례지다니.

내가 나라를 위해 한 일이 있다면 평양신발기계공장에서 로동자로 40여년간 맡은 일을 묵묵히 일하였을뿐이다. 그런 나에게 당에서는 품들어 지은 호화주택을 안겨주었다.

이것은 비단 나 하나만이 받아안은 사랑이 아니다. 인민이 주인된 우리 나라에서는 나와 같은 평범한 로동자들이 행복의 주인공이 되여 만사람들의 축복을 받고있다.

행복의 절정에서 나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듣게 웨치고싶다.

《우리들의 천만소원도 다 꽃피워주는 조선로동당이며, 그 품 떠나 나는 못살아!》

평양신발기계공장
로동자 라정환

당에서는 우리 농민들이 손쉽게 농사를 짓도록 현대적인 농기계들을 보내주었고 선진적인 농업과학기술을 마음껏 배울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뿐이 아니다. 우리들이 도시부럽지 않은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는것을 정책으로, 국책으로 정하고 현대적인 농촌살림집과 문화후생시설들도 마련해주었다.

지방의 여러곳들마다에 도시사람들도 부러워할 현대적인 농장도시가 일떠서고 온 나라의 농촌들이 선경으로 변모되어가는것을 목격하고 체감하면서 우리는 더욱 굳게 확신한다.

우리를 잘살게 해주는 로동당의 정책이 제일이다.

평양시 만경대구역
칠골남새농장 경리 조금숙

은혜로운 손길이 나를 이끌어준다



조선로동당창건 80돐을 눈앞에 두고보니 당의 품속에서 성장한 지난날이 감회깊이 되새겨진다.

공훈과학자, 박사, 부교수, 사회주의애국공로자...

공민으로서, 지식인으로서 높은 영예를 지닌 공지 높은 인생길을 돌이켜볼수록 나의 성장을 걸음걸음 보살펴주고 따스히 이끌어준 어머니당에 대한 감사의 정을 금할수 없다.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김책제철련합기업소의 평범한 로동자들이였다. 하지만 나라에서는 나의 희망을 헤아려 로동자의 자식을 김책공업종합대학에 불러 공부시켜주고 신성한 교단에까지 세워주었다. 그리고 내가 연구사업에서 성과를 낼수 있도록 온갖 조건과 환경을 다 마련해주었다. 뿐만아니라 연구사업에 전심전력하도록 생활상편의가 최대로 보장된 미래과학자거리의 현대적인 살림집을 무상으로 주었고 연풍과학자휴양소에서 즐거운 나날을 보내도록 해주었다.

그 사랑, 그 은덕에 보답하고자 나는 에네르기절약형 산소열법용광로를 창안하여 나라의 경제발전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하였다.

그런데 응당 해야 할 일을 한 나를 나라에서는 공훈과학자, 사회주의애국공로자로 온 나라가 다 알도록 내세워주었다.

정녕 내가 지닌 높은 영예는 과학중시, 인재중시를 정책으로 내놓고 과학자들의 등을 힘있게 떠밀어주고있는 우리 당이 없었던들 꿈에서도 바랄수 없는것이였다.

진정 조선로동당은 당마크에 붓대를 새긴 그때로부터 우리 지식인들을 품에 안아 영광과 행복의 단상으로 손잡아 이끌어준 위대한 스승이다.

하기에 나는 성공의 비결에 대해 묻는 외국의 벗들에게 서슴없이 대답하곤 한다.

《위대한 스승 조선로동당의 은혜로운 손길이 나를 성공으로 이끌어주었다.》

김책공업종합대학 연구사 공훈과학자
박사 부교수 사회주의애국공로자 민광식

일심단결을 실현한 당

조선로동당이 창당의 기슭을 떠난 때로부터 8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하다면 조선로동당이 최악의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흔들림없이 최장의 사회주의집권사를 가진 당으로 될수 있는 힘의 원천은 무엇인지.

돌이켜보면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인민과의 혈연적紐대를 강화하며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온 력사이다.

지나온 80성상의 로정에서 조선로동당과 인민이 헤쳐온 시련과 난관의 고비들은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것이였다. 그러나 당은 언제나 나아갈 침로를 정할 때마다, 준엄한 난관에 부딪칠 때마다 인민을 먼저 찾고 인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었으며 인민의 진정에서 무궁무진한 힘을 얻곤 하였다. 력사의 모진 시련속에서 조선로동당이 믿은것은 오직 인민뿐이였고 인민은 당의 둘도 없는 지지자, 조언자, 방조자였다. 당은 인민을 믿고 인민은 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당과 인민의 혼연일체가 있었기에 세기적인 락후와 빈궁이 지배하던 이 땅위에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들이 일어날수 있었다.

새 조국건설과 조국해방전쟁의 빛나는 승리, 남들이 수백년동안 실현한 공업화를 1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완수,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 압살책동을 물리치고 국가의 자주권을 수호한것을 비롯하여 우리 나라에서 이룩된 모든 승리들은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전체 인민이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위력이 안아온 력사의 필연이다.

지난 10여년간 조선로동당은 일심단결의 불가항력으로 엄혹한 시련기를 새로운 양양기로 반전시키며 이 땅에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적사변들을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이룩하였다.

력사와 현실은 일심단결의 위력을 백방으로 다져나가는 여기에 혁명의 승리적전진이 있고 양양한 전도가 있음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그러면 주체조선특유의 일심단결을 굳건히 다져주는 기반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전인민적인 사상의지, 다름아닌 위대한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이다.

조선혁명의 길은 그 하나하나의 걸음이 간고한 시련의 련속인 동시에 수령을 받드는 전체 인민의 충성심이 승화되어온 로정이였다. 우리 인민은 남들 같으면 열백번도 쓰러졌을 엄혹한 환경속에서 우리나라를 자주의 길, 사회주의길로 즐기치게 이끌어 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인적풍모에서 자기들이 얼마나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사는가 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다시금 깊이 체득하게 되였다.

당의 위대성은 곧 령도자의 위대성이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는것처럼 인민을 받들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는것을 자신의 당연한 본분으로 간주하고계신다. 해마다 수도와 농촌에 세인이 부러워하는 문명의 새 거리들과 희한한 살림집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고 《지방발전 20×10 정책》실현을 위한 사업이 강력히 전개되고있는 현실은 인민의 복리를 위함에 천사만사를 북중지향시켜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인민사랑의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우리 당과 정부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신의는 금전을 가지고도 얻을수 없는 진짜재원이라고 하시며 평안북도 신의주시와 의주군의 큰물피해현장에 나오시여 주민구조 및 대피사업을 직접 지휘하시였고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피해복구와 관련한 국가적인 중대 조치들을 거듭 취해주신 그이이시였다.

하기에 인민은 그이께 자기들의 운명과 미래를 다 맡기고있으며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당의 사상과 정책을 받들어나가는데 충성을 다 바쳐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일심전력으로 받들어나가는 길에서 새로운 시대정신, 시대속도들이 창조되고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도달해야 할 본보기, 표준이 수없이 마련되였다.

위대한 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당의 두리에 전체 인민이 굳게 뭉친 일심단결이 있어 조선로동당은 앞으로도 영원히 자기의 붉은 기폭에 승리와 영광만을 아로새길것이다.

글 김지성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린 선물

수지공예 《송학연년》과 《호박》

수지 공예 품들인 《송학연년》과 《호박》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을 맞으며 한 재중항일혁명투사의 손자, 손녀가 성의껏 마련하여 올린 선물들이다.

두점의 수지공예에는 각각 《송학연년》, 《재부풍수》라는 글이 써여져있다.

《송학연년》과 《재부풍수》는 글귀가 서로 어울리는 시어로서 《소나무와 학처럼 오래도록 살다.》라는 뜻과 《모든것이 풍요롭다.》 또는 《온갖 재부를 풍부하게 거둔다.》라는 뜻을 담고있다.

선물들에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부디 안녕하실것과 그이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사회주의조국에서 모든 일이 잘되고 만복이 차례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있다.



낮에는 적의 세상, 밤이면 우리 세상

(전호에서 계속)

왕청에서 다년간 공청사업을 해온 최봉송은 언제인가 좌경으로 인하여 빚어진 유격구시절의 비사들을 회고하는 좌석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좌경이라는 말만 들으면 초기유격구시절이 자주 눈앞에 서물서물합니다. 간도에서의 좌경이 정말 지독했습니다. 한번은 유격대원들이 왕청령에서 일본군의 소금달구지를 로획해가지고 소왕청으로 끌고온적이 있습니다. 근거지가 생긴 초창기이니 아마 수령님께서 남만진출을 하실 때일것입니다. 달구지군은 샅일을 하여 그날그날 생계를 유지해나가는 최하층의 조선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좌경분자들은 <량면과군중>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그를 죄인처럼 다스렸습니다. 일본놈의 소달구지를 끌었으니 역적이라는거지요. 유격구밖에 있는 사람들이 유격구를 좋게 볼수 없었습니다. 참 기막힌 일이였습니다.》

적아를 구별하지 않고 기본군중까지도 서슴없이 처형하는 이와 같은 무지한 망동은 다른현의 유격구들에서도 빈번히 발생하였다. 그런데 중요한것은 이 저주받을 행위들이 모두 혁명이란 신성한 간판밑에서 꺼리낌없이 감행되어 항일을 하겠다고 따라나섰던 수많은 혁명군중을 《백색구역》으로 밀어던지는 가슴아픈 결과를 빚어낸다는데 있었다.

유격구의 좌경분자들은 지어 온성땅에서 적의 《토벌》에 희생된 부모의 제사를 지내려고 상경리에 온 리치백로인의 친척까지도 《반동군중》이라고 하면서 붙잡아가는 추태를 부리었다.

이런 행위를 목격할 때마다 나는 온몸과 넋

으로 참을수 없는 수치를 느끼었다. 만일 어떤 공산주의자가 반동이라는 감투를 씌워 무고한 백성을 마음내키는대로 처형한다면 그는 벌써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특급범죄자이다.

그런데 우리가 왕청에서 유격구생활을 할 때만 하여도 이런 특급범죄자들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특급혁명가》로 행세하면서 군중을 아무렇게나 망탕 다스리고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쏘베트만 가지면 만사가 다 해결될것처럼 생각하고있었는데 우리는 거기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근거지도 고수하고 혁명도 발전시키자면 폐쇄적인 경향을 극복하고 활동범위를 넓혀야 한다는것이 우리가 얻어낸 결론이었다. 말하자면 유격구사수에만 매달리는 근시안적인 활동방식으로부터 벗어나 큰 정예부대를 꾸려가지고 자유자재로 기동하면서 적극적인 군사정치활동을 벌리자는것이였다.

군대가 본격적인 군사작전으로 이행하자면 근거지방위에서 안고있는 부담을 줄여야 하였는데 이 부담을 줄이는 하나의 방책이 바로 완전유격구 주변의 광활한 지역에 반유격구들을 대대적으로 늘이며 이러한 반유격구들이 유격구를 옹위하도록 하는것이였다. 우리는 반유격구를 창설하는데서 우리 혁명의 새로운 승리를 담보할수 있는 돌파구를 찾았다.

나는 중국관내에서의 유격구건설경험을 참고할 목적으로 동장영과도 여러번 진지한 담화를 하였다.

1931년 가을 중국 강서성 서금에서는 중화 쏘베트림시정부수립을 선포하고 쏘베트구역을 창설하였다. 동장영의 말에 의하면 중국혁명의 수뇌부가 집결되어있는 쏘베트중앙구는 그 면적이 대단히 넓고 주민도 수백만을 헤아리며 무력

도 몇개 군을 이룰만큼 막강하다는것이였다. 동장영자신도 하남성에서 쏘베트구역을 창설한 경험을 가지고있었다.

당시 중국공산당이 령도하는 홍군은 10여만 명에 달하였고 그 관할지역은 강서성 남부로부터 광둥성 북부에 이르는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있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령토와 인구상으로 볼 때 어지간한 한개 독립국가와 맞먹는 중국의 쏘베트구역건설경험을 두만강연안에 그대로 이식할수 없다는것과 간도를 활동기지로 삼고있는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혁명의 책원지를 튼튼히 사수하고 유격전쟁을 판이 크게 벌릴수 있는 유일한 첩경은 완전유격구주변과 북부조선일대에 반유격구를 창설하는것이라는 견해를 더욱 굳히게 되였다.

반유격구창설의 필요성은 무장투쟁의 실천속에서 더욱 절박하게 제기되였다. 광대한 령역을 사수하자니 힘이 딸리였고 힘이 딸리니 그 타개책을 빨리 세우지 않을수 없었다. 우리가 만일 유격전을 해보지 않고 고전이나 뒤적거리며 로씨야볼셰비크들이 어떻게 했소, 중국 서금의 경험이 어떻소 하는 식으로 탁상공론만 하였더라면 해방지구형태의 유격근거지외에 또 다른 형태의 유격근거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것을 인식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그 창설을 그토록 절감하고 빨리 다그치지 못했을수도 있었다.

반유격구문제는 근거지에 대한 단순한 형태상의 고찰이 아니였다. 그것은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극복하고 혁명에서 주체적대를 세우는가 못세우는가 하는 사상적립장문제였으며 좌경에서 벗어나 지난날 《량면과군중》이라고 하면서 배척했던 광범한 인민들을 혁명의 동력

으로 보는가 보지 않는가 하는 군중관점문제였고 그들을 반일민족통일전선에 결속시키는가 못시키는가 하는 혁명력량편성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였다.

반유격구란 우리도 통치하고 적들도 통치하는 지역, 형식상으로는 적의 통치지역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우리의 관할지역으로서 항일유격대에 대한 지원조건도 지어주고 그 후비원천을 비롯한 혁명력량도 키워내며 적구와 유격구사이에서 중간련락소의 역할도 담당하는 그런 곳을 말한다. 좀더 형상적으로 표현하면 낮에는 적들이 통치하지만 밤에는 우리가 관할하는 그런 지역을 말한다.

혁명근거지건설에서 반유격구형태는 우리의 투쟁실정에 맞는것이였다. 이런 형태는 다른 나라들의 유격전쟁경험에도 별반 없는것이였다. 당시 우리 혁명의 발전로정은 반유격구창설을 절실한 과제로 내세웠다.

우리는 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발전시키며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조선혁명을 급속히 양양시키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1933년 3월중순 함경북도 온성군 왕재산일대에 진출하였다. 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하며 조국해방을 이룩하려는것은 항일대전을 선포한 그날부터 우리가 시종일관 견지해온 전략목표였고 우리의 가슴속에서 단 한순간도 떠나본적이 없는 불변의 신념이였다. 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하기 위한 선결조건은 룡읍일대를 비롯한 북부조선 지역에 반유격구를 꾸리는것이였다. 반유격구를 잘 꾸려놓으면 유격구건설에서 나타나고있는 이러저러한 좌경적편향도 능히 청산할수 있었다.

(다음호에 계속)

가리리 백두산으로

조국해방 80돐을 맞으며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단이 백두의 전구들을 답사하였다.



답사단 성원들은 조종의 산 백두산
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삼가
드리는 결의편지를 채택하였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백두산
지구 혁명전적지답사단 성원들
은 조선혁명의 시원이 열리고
항일대전의 성스러운 력사가
깃들어있는 조종의 산 백두산에
올랐다.

백두산정에서 그들은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
을 위한 애국성업에 모든것을
바쳐나갈 맹세를 담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삼가 드리는 결의
편지를 채택하였다.

이어 백두산밀영고향집을 찾은
답사단 성원들은 절세위인들의
영상을 모신 모자이크벽화에



백두산밀영 사령부귀를집앞에서



청봉숙영지에서



답사단 성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역사적인 군마행군의 나날 모닥불을 피우신 자리를 돌아보았으며 김승걸동포는 강사와 함께 노래 《사령부를 멀리 떠나서》를 불렀다.



우등불모임에서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를 통하여 느낀 소감을 토로하고있다.

구호문헌 등을 돌아보았으며 우등불모임도 진행하였다.

뿐만아니라 산간문화도시의 본보기,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된 삼지연시의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답사단 성원들은 답사를 마치면서 조국을 찾아주시고 빛내여 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였으며 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한 애국사업에 온넋을 바쳐나갈 결의를 피력하였다.

글 및 사진 김영호



삼지연학생소년궁전에서



삼지연종합전람관에서



답사단 성원들은 삼지연학생소년궁전 예술소조원들의 종합공연도 관람하였다.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빨찌산의 아들로 탄생하신 유서깊은 고향집에 소중히 보존되여있는 사적물들을 보면서 그들은 오로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끝없는 헌신과 로고로 이어진 불세출의 위인의 고귀한 한평생을 뜨겁게 돌이켜보았다.

사령부귀틀집을 찾은 그들은 항일혁명전쟁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시어 조국해방의 역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이 있어 공화국의 해외공민된 긍지높은 삶과 영예가 빛나고있음을 다시금 절감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으로 받들어모시고 항일의 혈전만리, 눈보라만리를 헤쳐온 선렬들의 고귀한 혁명정신, 투쟁기풍을 체득하며 그들은 우등불자리,



백두의 혁명정신을 새기며



여든 번째 조국해방의 날을 맞이하는 뜻깊은 8월에 우리 답사단 성원들은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올랐다.

우리들은 답사 전 기간 대오의 선두에서 공화국기를

펼쳐 휘날리며 항일혁명선열들의 투쟁정신을 본받아 백두의 행군길을 곳곳이 이어갈 의지를 담아 구호들도 웨치고 혁명가요들도 높이 불렀다.

전적지마다에서 강사들의 해설을 들으며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치시며 조국해방의 위업을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과 항일혁명렬사들의 숭고한 정신세계에 대하여 똑똑히 알게 되었다.

조선의 혁명가라면 누구나 백두산을 알아야 하며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자면 백두의 혁명정신을 가슴깊이 간직해야 한다고 본다.

나는 앞으로 재중조선인총련합회를 백두의 혁명정신만을 아는 애국의 대오로 꾸려나가는 데서 부의장으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갈 것이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부의장 차상보

생생한 체험으로

나는 이번에 생생한 체험으로 영광스러운 주체의 혁명전통이 어떻게 마련되었는가를 더 깊이 느끼게 되었다.

여름철이라 백두의 칼바람을 맞으며 백두산에 오르지는 못하였지만 나는 천고의 밀림속에서 항일전의 나날 장설을 헤치고 원썩격멸의 총성을 울린 혁명선열들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그러면서 그들처럼 살리라 마음다지었고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고 구호도 웨치었다.

정말 전적지의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에도 항일

혁명선열들의 넋원이 어려웠 는것같아 무심히 볼수 없다.

백두산은 조선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와보아야 하는 곳이다.

이곳에 오르면 몸도 마음도 다시 태어나는것만 같다.

이것은 나만이 아니라 모두의 한결같은 심정 일 것이다.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부회장 김승걸



조국을 보았다



천연수림으로 뒤덮인 백두의 전구들을 돌아보며 선열들이 어떤 정신으로 살며 투쟁하여왔으며 그들이 간직하였던 고귀한 마음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조금이나마 느끼게 되었다.

또한 우리 조국이 온갖 제재와 압박속에서도 굴함없이 자기가 선택한 길을 따라 변함없이 전진해나가는 원동력이 무엇이며 그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어째서 조국인민들이 백두산을 찾으며 백두의 혁명정신을 그대로 이어가고있는 가도 알게 되었다.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는 완강한 공격정신,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끝까지 싸우는 견결한 투쟁정신인 백두의 혁명정신을 안고 살면 세상에 무서울것도 못해 낼 일도 없다.

많은 명산들을 돌아보았지만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올랐을 때처럼 가슴이 벅차오르고 온몸에 용기가 솟아오르는것은 처음이었다.

참으로 백두산은 명산이기 전에 혁명의 성산이며 조종의 산이다.

나는 백두산에서 조국을 보았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길림지구협회 회장 김련원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사무국장 동주봉매부, 정은심동생 앞

가풍을 잊지 말고

보고싶은 동생, 그간 잘 있었소.

재중조선인총련합회에서 사무국장을 하는 매부도 건강해서 잘 있으리라 보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꾸 동생의 모습이 눈에 밝혀와 잠을 이룰수 없소.

아마도 혈육의 정은 세월이 흐를수록, 멀리에 있을수록 더한 것 같소.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동생을 막내남동생보다 더 고와는 했지만 일만 일이라고 하면서 말로서, 오빠로서 많이 사랑해 주지 못했소.

동생도 기억하겠지만 대학교원이었던 아버지와 어머니가 늘 바빠 살다보니 우리 가족은 언제 한번 오붓이 모여앉아 식사를 하고 들놀이를 나간적이 많지 못했소. 그때 동생이 수고가 많았지.

난 지금도 눈을 감으면 손뽕금을 타면서 노래를 부르던 동생의 모습이 떠올라 절로 마음이 흥그러워지곤 하오.

공부도 잘하고 노래와 요리도 잘하던 동생은 전국적인 대학생웅변경연에서도 우승하여 모두의 선망의 눈길을 모았었지.

동생은 이 오빠의 자랑이었고 긍지였소.

난 늘 경련이에게도 고모처럼 살아야 한다고 말하곤 하오. 동생은 경련이를 무척 고와했지. 그랜 평양외국어대학에 입학할 때 동생이 기념으로 사준 컴퓨터를 무척 애용하고있소.

형님은 여전히 상업봉사일로 바빠 지내고있소.

아마도 그렇게 사는것이 우리 집의 래력이 아닌지.

동생, 난 건강이 좋아졌소. 동생은 내가 3년전 대퇴골절로 평양의학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는것을 알고 많이 걱정했었지. 나도 처음엔 지팡이를 짚고다니자니 앞이 캄캄했소. 그런데 의사선생님들이 얼마나 지극한지 수술후에도 회복치료를 잘해주어 작년부터는 지팡이와 리별하였소.

그때 동생이 내가 다른 나라들에서 수술을 받았으면 아마 엄청난 수술비를 지불했을것이라고 말할 때 나는 이 땅에서 누구나 받아안은 무상치료제의 혜택이 얼마나 큰가를 다시금 온몸으로 느끼었소.

동생, 동생도 그곳에서 조국의 소식을 많이 들었겠지만 평양이 몰라보게 변모되었소. 곳곳에 송화거리, 화성거리, 림흥거리, 전위거리 등 희한한 새 거리, 새 살림집들이 펼쳐져 자기가 어디 있는지 모를 정도요.

수도뿐만이 아니라 지방도 도시부럽지 않게 나날이 달라지고있소.

동생, 언제이건 조국에 오면 나와 함께 변모된 여러곳을 발목이 시도록 다녀보시오. 동생이 좋아하는 매주장이랑 국수랑 내 준비해놓고 기다리겠소.

동생도 우리 집의 가풍을 잊지 말고 곁에서 매부일을 더 잘 도와주오.

앓지 말고 건강하여 가정에 늘 웃음꽃을 피우기 바라오.

매부에게도 내 인사를 전해주오.

평양시 중구역 교구동 11인민반 정혁철오빠로부터



더 좋은 래일을 마중가는 해안도시



우리는 얼마전 우리 나라 동부에 위치하고있는 강원도 소재지인 원산시를 찾았다.

바다가연안에 위치하고있는 원산시는 전국적으로 《항구 문화도시》, 《해안관광도시》 등 여러가지로 명성이 높다.

특히 지방공업은 전국의 앞장에 서있다고 볼수 있다.

우리는 먼저 《매봉산》 상표로 소문난 원산구두공장을

찾았다. 공장의 제품들은 맵시 있고 질기면서도 가벼워 소비자들의 각광을 받고있다. 최근 년간 공장에서는 갱신주기가 짧아지고있는 신발공업의 발전 추세에 맞게 새형의 구두와 운동신을 개발하여 품종수를 늘이였다.

그리고 선진과학기술을 토대로 여러 설비들을 제작하고 새 공정을 보강하여 일부 손로동을

없앴을뿐 아니라 생산능률과 제품의 견고성을 높이였다.

공장은 경공업제품전시회 《경공업발전-2023》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지난해 4월에 진행된 봄철전국신발 전시회-2024에서 1등을 한것을 비롯하여 여러 전시회들에서 앞자리를 차지하였다.

《마음먹고 달라붙으면 얼마든지 명제품을 생산할수 있다는

자신심, 이것이 우리 공장이 신발 공업부문의 선두에 설수 있게 한 비결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제화직장 직장장 진성호는 말하였다.

중앙의 이름있는 식료공장들과 당당히 경쟁하며 지방공업 발전의 상징, 대명사처럼 불리우고있는 송도원종합식료공장도 마찬가지였다. 공장에서 생산되는 식료품은 10여종에 수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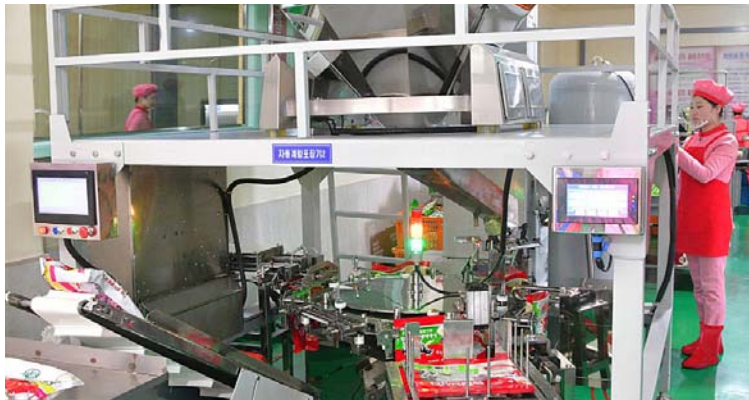
가지나 되였다. 공장은 새 제품 개발과 질담보로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판매범위를 넓히였으며 생산규모도 끊임없이 확대하였다.

전국식료품전시회-2025와 제16차 평양제1백화점 상품 전시회를 비롯한 전국적인 전시회들에서 공장은 특등과 1등을 하였으며 다른 나라들에도 공장의 제품들이 출품되어 많은 사람

들의 이목을 끌었다.

림순희지배인은 전국의 많은 단위들에서 경험을 배우기 위해 공장을 찾고있다고 하면서 공장이 오늘과 같은 성과를 거둘수 있게 된 비결은 하나를 만들어도 선진수준에서 생산하려는 종업원들의 열의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고 하였다.

수십종의 가방을 새롭게 만들어 내고있는 원산영예군인가방공장



송도원종합식료공장에서



원산구두공장에서



매봉산샘물공장에서

과 지난 4월에 진행된 봄철 전국 신발전시회-2025에서 1등의 영예를 지닌 원산신발공장에서 도 개발창조로 단위발전을 추동하고있었다.

오늘날 원산시의 자라는 지방 공업공장들만이 아니였다.

예로부터 명소로 소문난 갈마 반도의 명사십리에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가 일떠서 원산시는 더욱 유명해지게 되었다. 특히 원산이 고향인 관광객들의 감흥은 류달랐다. 우리는 이곳에서 원산시 개선동에서 살고있는 윤혜숙로인을 만났다.

그는 《온 나라가 다 아는 해안관광지구가 바로 우리

원산시에 있다는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다. 전국 각지에서 내 고향의 갈마반도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미국에 있는 동생생각이 간절해진다.》고 하면서 윤홍일동포에 대한 추억도 떠올리였다.

해안관광문명을 누리는 관광객들의 모습을 사진기에 담는 우리

에게 시의 한 일군은 오늘 원산시는 지방공업발전의 본보기들을 안고있는 참관지, 훌륭한 해안관광지구를 가지고있는 도시로 되었다고 공지에 넘쳐말하였다.

돌아볼수록 힘이 솟고 신심이 넘치게 하는 원산시였다.

우리의 눈앞에는 만나본 원산

시민들의 락관에 넘친 모습들이 떠올랐다.

그 모습들은 조선로동당이 펼친 휘황한 설계도따라 더 힘차게, 더 새롭게 분발하여 보다 좋은 래일을 앞당겨오려는 원산시민들의 신심과 열정의 축도였다.

배고동소리 유정한 항구도시

의 밤은 깊어갔다. 그러나 여운 깊은 기행길을 마치고 이곳을 떠나는 우리의 눈앞에는 해쑈는 바다처럼 눈부신 원산시의 래일이 안겨왔다.

글 전통진
사진 김강무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가 지난 7월 1일부터 봉사를 시작하여 원산시는 더욱 유명해지게 되었다.





공민적의무로 이어지는 애국의대

- 강원도관광관리국 부원 김문희 -

누구에게나 자기의 행복에 대한 생각이 있다.

하다면 강원도관광관리국 부원 김문희와 그의 딸들의 행복에 대한 지향은 어떤 것인지.

《어머니가 미술전람관사업을 해온지는 아마 30년이 넘을 겁니다.》

이렇게 서두를 땀 박경림은 어머니 김문희에 대한 이야기를 조용히 펼쳐놓았다.

김문희녀성이 강원도미술전람관 부관장으로 사업을 시작한것은 1990년대중엽이었다고 한다. 언제인가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어느한 미술전람회를 돌아보시면서 이런 훌륭한 작품들을 지방인민들에게도 보여 주어야 한다고 하시며 강원도를 비롯한 각 도에 전람관을 꾸릴 데 대한 조치를 취해주시었다는 소식을 전해들게 되었다. 당시

나라가 시련을 겪던 시기여서 모든것이 부족하였지만 그는 전람관건설을 자기가 맡아해야 할 공민적의무로 여기고 헌신적으로 일하였다. 전람관건설을 끝낸 후에는 직접 수도로 오가며 미술작품선정과 운반도 주관하였다. 그의 노력에 의해 마침내

도에서 처음으로 되는 미술전람회가 열리었다.

참관자들의 반향은 대단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두손을 잡고 정말 좋은 작품들을 보았다고, 앞으로 이런 전람회를 자주 조직해달라고 하였다.

참관자들의 반향을 들으면서



딸들과 함께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에 있는 만수대창작사 미술관을 찾은 김문희(왼쪽), 둘째딸 박경진(왼쪽), 둘째딸 박경림(오른쪽)

그는 자기가 하는 일의 공지와 보람을 느끼었다. 사실 전람관을 건설해놓고 전람회를 열었지만 사람들의 평가에 대한 우려와 불안도 없지 않았던 그였던것이다.

신심을 가진 그는 그후 미술작품들을 구입하는데 많은 품을 들이였으며 수많은 전시회를 열어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이바지하였다.

자기 직업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아글타글 노력하는 그의 모습은 자식들에게 영향을 주었으며 딸들도 어머니를 적극 도와나서게 되었다.

전람관사업으로 늘 바빴지만 그는 미술에 대한 딸들의 안목을 넓혀주기 위해 많은 시간을 바쳤다. 선조들이 이룩해놓은 미술유산들을 하나하나 이야기 해주었고 화법과 그림들에 담겨진 화가의 기법 등을 파악하는 방법들도 알려주었다.

사실 어려서부터 그림그리기에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있던 그는 8살에 세계아동미술전람회와 전국적인 아동미술전람회에 작품들을 입선시켜 미술신동으로 이름을 날렸었다.

세월의 흐름과 함께 다듬어지고 세련되어진 기법과 축적된 경험을 딸들에게 다 넘겨주고싶은것이 그의 심정이였다.

그 나날 김문희녀성의 마음속에는 딸들도 자기의 뒤를 이어 갔으면 하는 기대가 갈마들었다. 하지만 그는 자기의 의향을 자식들에게 내비치지 않았다. 그들스스로가 따라나서길 바랐던것이다.

전람관사업은 결코 험한 일이 아니였다.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전람관을 개진해야 하였고 미술작품들의 구입과 그 보존관리에 지성을 바쳐야 했다.

힘들고 물려서고싶을 때도 많았지만 딸들은 어머니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어머니의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잡고있으며 어떤 지향을 안고 수십년 동안 이 길을 걷고있는가를 잘 알고있는 그들이였다. 하기에 어떤 날에는 하나의 작품을 구하기 위해 미술가들을 찾아 먼길을 걸기도 하였고 어떤 때에는 수십년이 지난 미술작품들의 변색을 막기 위해 문헌 자료를 탐독하느라 밤을 지새우기도 하였다.

이러한 헌신적인 노력이 있어 전람관이 현대적으로 개진된것은 물론 미술작품의 보존관리에서 그들은 전국적인 본보기를 창조하였다.

오늘 김문희녀성의 딸들인 박경진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에 있는 만수대창작사 미술관 경리로, 박경림은 강원도미술전람관 부관장으로 사업하고 있다.

7살에 조국의 품에 안긴 김문희녀성은 지금 강원도관광관리국 부원으로 사업하고있다.

그는 일생에서 제일 기뻐던 순간을 이렇게 추억하였다.

《딸들이 나의 뒤를 이어 한 일터에 서게 되었을 때, 사회와 집단을 위해 자기의 몫을 할 때 어머니된 자부심이 참으로 뿌듯했다.》

그 누군가는 서야 할 일터에 대를 이어 서있다는 긍지, 그 어떤 공명과 보수도 바람이 없이 사회와 집단을 위해 공민적의무를 다해가려는 진정, 바로 그것이 김문희가정의 행복에 대한 지향이 아닌지.

글 변진혁
사진 림승진



상식

건강상태와 입술

입술에 금이 가면 유기체에 철과 카로틴이 부족하다는 신호로 된다.

터갈라진 입술은 비타민과 칼슘 혹은 마그네슘이 부족하다는것을 말해준다. 이 물질들이 부족하면 피부는 건조해지고 갈라지면서 터지기 쉽다. 젖제품을 많이 먹고 맥주효모와 함께 비타민, 종합광물질

알약을 쓰는것이 좋다.

입술색같이 푸르스름하면 피순환장애, 심장병의 징후이다.

선홍색이나 검붉은색의 입술은 고혈압이나 뇌졸중 환자들에게서 찾아보게 된다.

* * *



장수 고려약공장

얼마전 취재길을 이어가던 우리는 만경대구역 당상2동에 살고있는 림기철로인으로부터 단삼궁궁이심장방울알약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 로인은 길을 가다가 허혈성심장병으로 정신을 잃었었는데 이 약을 먹고 일어섰다고, 그후 약을 복용하였는데 심장아픔, 가슴답답한감, 숨차기가 없어졌다고 하였다.

단삼궁궁이심장방울알약은 장수고려약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다.

평양시 보통강구역에 위치하고있는 장수고려약공장은 국내에서 이름난 고려약공장들 중의 하나이다.

1971년 12월에 세워진 공장은 조업당시 고려약의 원형가공품들인 탕약, 가루약을 비롯한 생약가공을 기본으로 하였다.

그러던 공장은 오늘 개건되어

현대적인 설비들로 장비되었으며 의약품의 질을 훨씬 더 높일수 있게 되었다.

공장에서는 과학기술을 앞세우고 고려약의 엑스화,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는것과 함께 나라에 흔한 약재들을 적기에 채취하여 효능높은 약들을 생산하고있다.

뿐만아니라 공장의 기술자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쳐 약초들에 들어있는 성분들을 효과적으로 추출분리해낼수 있는 성분분리기도 제작하였다.

이 성분분리기로 만든 단삼궁궁이심장방울알약과 전통적인 약전과 규격에 따라 제조한 삼향우황청심환, 룡미환, 울무창출고, 비피스피막알약, 산골뼈성김증알약 등은 사람들로부터 호평을 받고있다.

국내 특허를 받은 단삼궁궁이

심장방울알약을 비롯한 의약품들은 공장을 상징하는 약으로 되고있다.

이외에도 공장에서 생산한 약들은 지난 시기에 진행된 봄철, 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 등에서 여러 차례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국가적인 우수제품으로도 등록되었다.

조경호지배인은 《우리 공장 제품들에는 <장수>라는 상표가 있다. 우리는 제품을 생산하고 개발해도 그 하나하나에 인민들의 건강과 장수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있다.》라고 말하였다.

생산자들의 이러한 마음에 떠받들려 《장수》라는 상표를 단 고려약들은 인민들이 먼저 찾는 약들로 되고있다.

글 엄향심
사진 리영철



경추를 보호하는 몇가지 방법

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면 몸을 춥지 않게 하여야 한다. 간혹 찬바람을 맞았을 경우에는 땀을 없애는 탕을 끓여마셔야 한다. 사탕가루 2숟가락, 생강 7조각을 물에 두고 10분정도 졸인것을 1~2번정도 마신다.

② 낮잠을 자고난 후

낮잠을 자고난 후에는 인차 사업에 착수하지 말고 한손으로 목부위를 안마해야 한다. 이때 힘을 가볍게 주며 편속 50번 주무른다. 목에 열감이 있을 정도로 주무르면 편안한감을 느낄수 있다.

③ 운동방법

연골조직의 영양물질은 피를 통해 공급되는것이 아니라 압력변화에 의하여 교환된다. 만일 운동을 하지 않으면 연골조직의 영양물질이 부족되어 조직이 퇴화되게 된다.

그러므로 운동은 경추를 보호하는 방법의 하나이다. 이러한 운동에는 수영, 건강체조 등이 있다.

* * *

기능성제품개발에 주력하여

평양양말공장에서 기능성양말들을 생산하고 있다.

항균성명주양말과 리오셀양말, 견교연양말, 운동양말을 비롯한 기능성양말들은 질이 좋을뿐 아니라 활동성과 위생성이 좋다.

항균성명주양말은 살균력이 강한 나노은을 명주실에 부착시켜 만든것으로서 발의 위생성 보장에서 효과가 높으며 리오셀양말은 땀을 빨아들이거나 내보내는 성질이 좋은 리오셀섬유의 특성으로부터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서늘한감을 준다. 또한 견교연양말은 살균작용이 강하고 피부보호기능이 높다.

공장의 공업기술연구소 부소장 차국철은 《새 제품 한종을 개발하고 생산에 도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나의 도안을 창작하는데만도 적지 않은 품이 들고 새 제품을 생산에 도입하자고 해도 설비개조가 따라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공장의 연구집단은 년초부터 새 제품개발과 관련한 기술혁신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고 완강하게 밀고나갔다.

명주의 염색이 불균일하고 항균제의 흡착성이 높지 못한것과 리오셀섬유의 제직성보장 등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는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그러나 기술자들은 분발하여 문헌자료들에 대한 연구와 수십차례의 실험을 진행하면서 사색과 탐구를 거듭해나갔다.

명주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섬유와 약제들에 대한 분석을 과학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염색공정의 기술지표들을 새롭게 확정해나갔다. 이 과정에 명주실의 염색방법과 리오셀섬유의 제직방법이 확립되게 되었다.

연구소의 도안창작가들도 도안들에 사람들의 기호와 정서에 맞는 모양과 색깔, 무늬를 반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 나날에 공장에서는 성별과 나이, 계절별에 따르는 10여가지의 새 제품들을 내놓을수 있었다.

하나의 제품을 개발해도 인민들이 선호하고 반기는것으로 되어야 한다는것이 바로 이곳 생산자들의 관점이다.

글 김성경, 사진 김강무



방직설비들의 현대화에 힘을 넣어

평양시 선교구역에 있는 평양방직기계공장은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세워진 공장이다.

평양방직기계부속품제작소로 첫걸음을 내딛은 공장은 지난 시기 우리 나라 방직기계공업의 기초를 다지고 발전시켜나가는 데서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공장은 1962년에 지금의 명칭으로 개칭되었다.

모든것이 파괴되던 가렬한 전쟁시기 인민생활을 안정향상시키고 나라의 방직공업을 전망성 있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창립된 공장은 그때로부터 오늘까지 연혁사에 자력갱생의 자욱을 새겨왔다.

공장의 노동자, 기술자들은 자동력직기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하여 전시천생산에 기여하였으며 여러가지 방직기계부속품도 생산하여 방직공장들에 보내주었다.

그후에는 비로도직기, 공기직기, 창대식무복직기를 비롯하여 많은 종류의 직기들도 만들어 인민경제발전에 기여하였다.

공장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철분말합금생산을 공업화하여 방직기계부속품생산을 3배로 장성시키였다.

공장에서 내놓은 구상화흑연주철생산방법, 연강열처리기술은 1991년과 1994년에 진행된 제19차, 제22차 국제제네바



축전에서 금상을 쟁취하였다.

자체의 힘과 기술로 부딪치는 애로와 난관을 헤치며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울려온 공장에서는 유연창대직기생산공정도 확립하고 2005년에 첫 시제품을 생산하였으며 전국의 방직공장들에 보내주었다.

최근시기에는 방직설비의 고속화,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기분사직기제작에 달라붙었다.

유연창대직기에 비해 생산성이 훨씬 높을뿐 아니라 기료품소모가 적은 공기분사직기에 대한 수요는 지금 국내방직공업부문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다.

공장에서는 공기분사직기

의 고속화실현에서 기본고리로 되는 전동장치부분의 부속품가공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여 직기들을 계열생산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공장에서는 지방공업공장들과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필요한 대상설비도 생산하여 보내주고있다.

공훈기술자, 공훈기계제작공을 많이 배출한 공장에서는 오늘도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울리고있다.

공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의 자욱이 새겨져있다.

글 김슬기
사진 리영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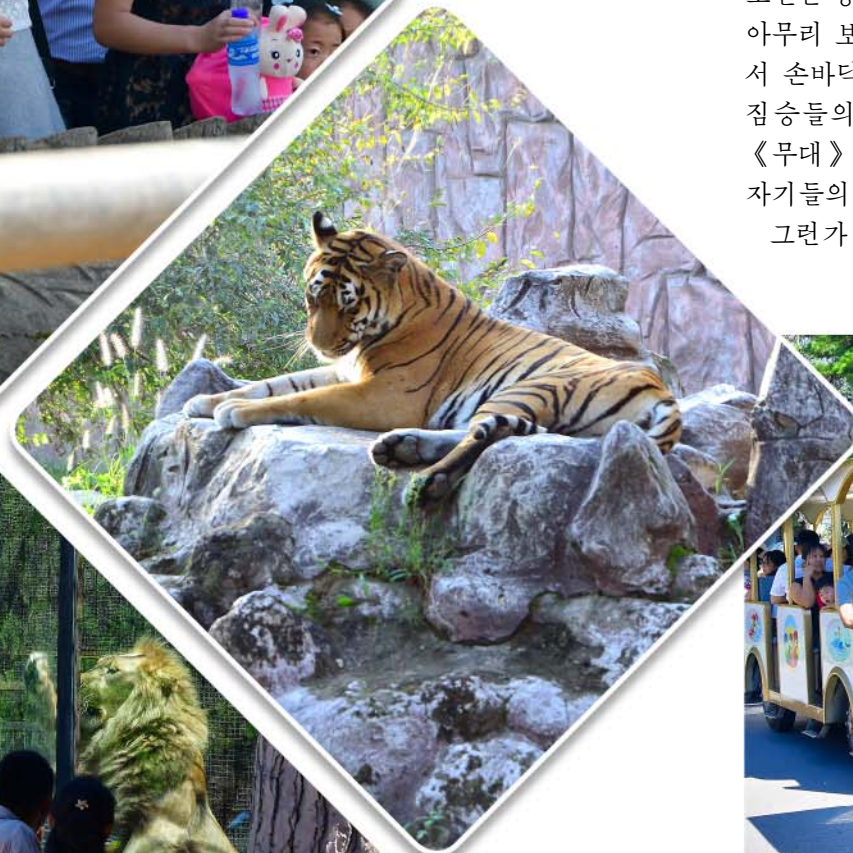
누구나 즐겨 찾는 중앙동물원

100여정보의 부지면적을 가진 중앙동물원에는 수족관, 파충관을 비롯하여 8개의 동물관을 포함한 45개의 동물사가 있으며 830여종에 1만 1 800여마리의 동물이 있다.

풍치수려한 대성산기슭에 위치한 중앙동물원으로는 매일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있다. 멀리에서 보아도 동물원이라는것이 직관적으로 안겨오게 커다란 범아가리를 형상한 출입구로 들어가는 사람들 누구나의 얼굴마다에 웃음이 가득 실려있다.

열대수림속을 헤치는듯한감을 주는 파충관에서 사람들은 여러종의 거북기, 악어 등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모습이 보이고 폭포수 쏟아져 내리는 산속의 경치를 그대로 옮겨놓은듯싶은 신물동물2판에서는 희귀한 동물들을 보며 좋아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칠줄 모르고있다.





물개재주장에서 물개와 물범들이 하는 여러 동작들은 그야말로 인기를 모으고있다. 어떤 로인은 동물원에 올 때마다 여기 와서 보군 하는데 아무리 보아도 싫지 않다고, 오늘 너무 박수를 쳐서 손바닥이 다 아프다고 웃으며 말하였다. 바다 짐승들의 동작이 끝나자 사람들은 너도나도 《무대》에 올라와서 물개와 악수도 하며 그러한 자기들의 모습들을 손전화기로 찍기도 하였다. 그런가 하면 큰 새조롱을 방불케 하는 명금사

에서는 아름다운 새들의 지저귐소리를 들으며 사람들이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있다. 바다속의 신비경에 잠긴듯한 느낌을 주는 수족관은 얼마전에 새로 들어온 10여종에 근 200마리에 달하는 물고기들을 보기 위해 찾아온 관람자들로 흥성이고있다. 생김새도 크기도 일반뱀장어와 비슷하지만 꼬리에서 850V이상이 나 되는 전기가 나오는 전기뱀장어는 학생소년들의 관심을 끌고있다.

관람용런결차와 관람용축전지차, 꽃마차에 올라 여러 동물사를 돌아보고 이르는 곳마다에 펼쳐진 하마며 코끼리, 원숭이와 같은 동물들을 형상한 원림경관들을 감상하는것도 이곳에서만 느낄수 있는 독특한 정서이다.

이채롭게 꾸러진 원숭이동산식당, 곰동산식당, 물새못식당을 비롯하여 그 이름조차 동물원의 특성이 살아나는 식당들마다에서는 특색있는 요리들을 맛보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울려나오고있다.

그 어느때 와보아도 중앙동물원은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의 기쁨과 랑만으로 가득차있다.

글 연 옥
사진 김성철, 김영호, 리영철



관광부문의 전문가들로



새 교수방법창조를 위한 교수합평회

평양관광대학은 관광부문의 전문가들을 키워내는 교육단위이다.

지난 기간 대학은 능력있는 전문가들을 많이 양성하여 나라의 관광업발전에 적극 기여하였다.

최근년간 나라의 관광업이 급속히 발전하는데 따라 대학은 학부와 학과들을 보다 세분화하고있으며 교육내용의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를 끊임없이 다그쳐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관광부문의 전문가들을 키워내는 교육단위의 특성에 맞게 대학에서는 외국어교육에 품을 넣어 대학기간 학생들이 2개 이상의 외국어를 소유한 다국어 소유자로 되도록 하고있다.

대학에서는 학생들을 주동적인 탐구자, 창조형의 실천가로

키우기 위한 실리있고 우월한 교수방법들도 적극 연구도입하고있다. 이와 함께 실습교육의 비중을 늘이는 한편 관광안내통역에 학생들을 적극 인입시켜 그들이 실천속에서 배운



관광지에서의 안내실습

지식을 공고히 하고 실기능력도 높여나가도록 하고있다.

교무과과장 림성호의 말에 의하면 대학에서는 올해 상반기에만도 학생들의 연구능력과 응용능력을 높여주는 연구형 교수방법을 비롯한 여러건의 가치있는 교수방법들을 창조 도입하여 교수의 질을 개선하고 있다고 한다.

이뿐만 아니다.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은 관광리론을 정립하고 관광업을 과학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과학연구활동을 활발히 벌리고있으며 국제기구들과의 학술교류, 공동연구 등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있다.

글 김지성
사진 김성철



무선 마이크

무선주파수범위	940~960MHz
변조방식	FM
통로수	100개 (통로간격 200kHz)
무선주파수안전성	0.005%
음성주파수	50Hz-18kHz
전고조파이지리짐 (1kHz)	0.4%이하
신호대 잡음비	105dB이상
동적범위	105dB이상
이지리짐	0.5%이하
동작거리	50m
동작온도	-10~55℃

무선출력세기	10mW
출력주파수정확도	30ppm이하
최대음압	110dB SPL
마이크수감부	가동선륜형
전원	1.5V 전지약 2개

한 학생을 위해 바쳐진 700여일



김주명(왼쪽)의 학습을 지도하고있는 담임교원 김용혁

(세계관형성과 지식습득에서 중요한 이 시기의 교육을 놓치게 되면 주명이가 어떻게 되겠는가.) 생각할수록 강춘실교장에게는 출석부의 그 공백이 교육자의 량심에 난 큰 공백으로 안겨왔다.

그날 강춘실교장의 퇴근길은 평천구역 새마을 1동 86인민반에 있는 김주명학생의 집으로 향하였다.

그때를 돌이켜보며 강춘실교장은 《쌍지팽이를 벽에 세워놓고 종일 집안에만 움츠리고있는 주명이를 보았을 때 눈물이 앞서는것을 금할수가 없었다. 그때 본 주명이는 공부에 대한 의욕도, 생활에 대한 욕망도 잃었고 그로 하여 어머니의 보살핌과 삼촌들의 안타까운 호소, 그 모든것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 걸으려는 용기조차도 내지 못하고있었다.》라고 말하였다.

소년의 창백해진 얼굴, 그의 눈동자에 비친 공허함을 볼수록 강춘실교장의 가슴은 미여지는 듯하였다.

다음날 학교에서는 주명이의 교육문제를 놓고 협의회가 진행되었다.

《주명이에게는 꿈이 필요하고 목표가 필요하다. 주명이는 이것이 없기때문에 정성이 지극한 의료일군들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팽이를 짚고있는것이다. 교육자들인 우리들이 이것을 알면서도 수수방관한다면 주명학생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가 주명학생을 일으켜 세워주고 그의 재능도 찾아 앞길을 열어주자.》

강춘실교장의 목소리는 교원들의 마음을 세 차게 흔들어놓았다.

김용혁교원이 담임교원이 되기를 자진해나섰고 매 분과의 우수한 7명의 교원들이 과목별교원으로 임명되었다.

그때부터 학교의 교무실칠판에 《김주명수업》이라고 쓴 시간표가 그려지게 되었고 교원들이 학생을 찾아가는 일이 생겨지게 되었다.

지금으로부터 3년전 당시 평양시의 평천구역 성안초급중학교 축구과외소조원이었던 김주명은 훈련도중 뜻밖에 다리를 상하게 되었다. 여러 차례의 수술과 1년간의 집중치료를 받은 소년은 평천구역 봉학고급중학교에 진학했지만 학교에는 나가지 못하였다.

이 시기 교육을 놓치게 되면

2년전 학급별출석부를 료해하던 평천구역 봉학고급중학교 교장 강춘실은 1학년 1학기 전 기간 입원으로 표기되어있는 주명학생의 이름에서 오래도록 눈길을 떼지 못하였다.

오늘만이 아니라 먼 앞날까지도

수백명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의 교무행정사업에서 한명의 학생을 위해 여러명의 교원을 떼서 이동수업을 보장하는것이 결코 쉽지 않았다.

하지만 오래동안 뒤떨어진 주명이의 교육과정을 보충해주기 위해 교원들은 단 하루도 수업을 드리지 않았다.

그러나 소년은 수술받은 다리를 넘어설수 없는 장벽으로 여겼고 그래서인지 공부에서도 피동에 빠져있었다. 치료때문에 뒤떨어진 1년간의 교육과정을 따라잡는것보다도 더 어려운것이 자기 자신에게 포로되어있는 주명이의 심리상태를 바로잡는것이였다.

침묵으로 엮드레질하는 주명이의 마음을 열기 위해 담임교원은 자기 집보다 학생의 집에 더 많이 머물러있었고 만화영화와 교편물들을 학습에 유기적으로 결합하면서 그가 공부에 재미를 붙일수 있게 하였다. 과목별교원들도 많은 시간을 주명이를 위해 바쳤다.

진정에는 바위돌도 녹는다는 말이 있다.

나날이 더해만지는 선생님들의 진정은 위축되어있던 주명이의 마음에 안정을 가져다주었고 시들어가던 생애 활력을 안겨주었다.

하기에 주명이는 일기에 엄하면서도 다심한 사랑으로 자기의 성장을 이끌어준 교장선생님의 모습이 친할머니의 모습으로 안겨왔고 고독할 세라 재미있는 책도 가져다주며 따듯이 보살펴주던 용혁교원의 모습이 아버지의 모습으로 안겨왔다고 하였다.

한편 주명이에게는 또 한명의 선생님이 생기게 되었다.

교수과정에 주명이의 남다른 재능을 발견한 용혁교원의 제의에 따라 학교에서는 미술소조지도교원인 김혜영을 과외소조지도교원으로 임명하였던 것이다. 뿐만아니라 강춘실교장은 공부에 필요한 종지와 붓도

마련하여 주명이에게 안겨주었다.

주명이의 어머니 조일숙녀성은 《그날 나는 것처럼 맑게 웃는 아들의 모습을 몇년만에 처음 보았다. 자식의 오늘만이 아니라 먼 앞날까지도 책임지고 이끌어주는 선생님들의 모습에서 진정 친혈육의 정을 느꼈다.》고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였다.

주명이는 열심히 공부하고 걸기훈련도 하였다. 때로는 식사시간도 잊고 그림을 그렸으며 모를것을 물어보느라 선생님들의 밤길을 무한정 지체시키기도 하였다. 그런 주명이가 교원들에게는 무척 대견하였고 그럴수록 학습지도에 더욱 힘을 들이였다.

이동수업을 시작한지 1년이 흘러 뒤떨어진 교육과정을 따라잡은 주명이는 2년후인 2024년 10월 1일에는 걸어서 학교에 갈수 있게 되었다.

김용혁교원은 《아직은 학교로 오가는 주명이의 걸음걸이가 조금 더딜수도 있고 수업과 과외소조활동이 힘에 부칠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더이상 넘어서지 못할 장애가 아니라는것을 주명이는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3학년에 진급한 김주명학생은 밝고 명랑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미래를 향해 가고있다.

글 김성영, 사진 김영호



미술소조지도교원의 지도를 받으며 그림연습을 하고있는 김주명

조국의 곳곳에 꾸려진
조선옷점들에서는 친절한
봉사와 높은 제작기술로
인민들의 옷차림문화발전
에 이바지하고있다.

피복전시회-2024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서성
구역종합양복점 서성조선
옷점도 그중의 하나이다.



조선옷의 특성을 살려

40여년의 연혁을 가지고있는
서성구역종합양복점 서성조선
옷점은 민족옷을 주문제작하
러 오는 손님들로 언제나 흥성
이고있다.

민족옷들의 전반적인 양상이
매우 부드럽고 우아하며 세련되
였다는것이 주문자들의 한결같
은 평가이다.

이곳 책임자 정영숙은
민족적인 형태미를 적극 살리면
서도 현대적미감에 맞게 색과
무늬장식을 어떻게 주는가에
따라 민족옷의 세련미가 더
살아난다고 하였다.

아름답고 우아한 무늬와 색
조화로 옷의 민족적색채와
현대미를 잘 살리는것이 바로
이곳 제작가들의 특기라고 할수
있다.

이들은 무늬를 선택하는데서
옷감의 재료와 색깔에 맞으면서
도 친근감을 안겨주고 민족적
정서를 질게 풍겨주는 고전무늬
와 현대적인 무늬들을 골라 잘
결합시키고있다.

특히 정교한 수예기법과
회화적느낌이 강한 조선화의
물결기법으로 섬세하게 형상된
무늬장식들은 민족옷의 품위를

높여주고있다.

색을 선택하는데서도 원색이
아니라 부드러운 중간계열의 색
배합으로 옷의 우아함과 룰동감
을 다같이 살려내고있다.

참신하고 독특한 무늬와 색의
조화를 통해 민족옷의 전통미
와 시대성을 살리려는것이 이곳
제작가들의 일관한 창작태도
이다.

《민족옷이 아무리 화려하고
우아해도 입는 사람의 생김새
와 어울리지 않으면 그것은
벌써 실패작이다.》

이것은 이곳 도안가 전향옥의

전해이다.

옷점에서는 주문자들의 생김새
와 육체적미, 기호와 취미에
맞게 설계와 재단, 수예, 가공
기술을 보다 높여 제품들을
완성하고있는데 이렇게 제작된
민족옷들은 손님들을 만족시켜
주고있다.

지난해 12월에 진행된 피복
전시회-2024에서 도안가
전향옥은 색조화와 무늬장식
에서 세련되고 부드러운 특징들
을 잘 살린 민족옷(어린이저고
리와 어른여자치마저고리, 어른
남자바지저고리)들을 출품하여
최우수상을 수여받았다.

글 김성경
사진 김강무



현 무 문

평양의 풍치수려한 모란봉에
있는 현무문은 고구려시기의
독특한 성문형식을 보여주는 귀중한
유적이다.

현무문은 6세기중엽 고구려
가 평양성을 쌓을 때 처음 세운

북성의 성문이였으며 지금의
성문은 1714년에 다시 세운것
이다.

현무문이란 이름은 사신가운데
서 북방방위신으로 되어있는 현무
에서 딴것이다.

해당 지역의 지형조건을 잘 리
용하여 세운 현무문은 성벽의 연장
으로 되는 축대와 그우에 세운
문루로 이루어졌다.

축대는 성벽과 같이 4각추형
으로 다듬은 성돌로 세로 통이음
줄이 나지 않게 차곡차곡 포개여
쌓았으며 그 북판에 무지개문을냈다.
축대우에는 성가퀴를 돌렸다.

특색있는 문루와 모루단청은
주변의 자연풍치와 잘 어울린다.

현무문은 우리 선조들의 열렬한
애국주의정신과 높은 성문건축술
을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 * *





삼계탕식당



우리 나라에는 보양음식으로 으뜸인 삼계탕을 잘 만들어 소문난 식당들이 많다.

평양시 락랑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삼계탕식당도 그중의 하나이다.

2017년에 개업한 식당은 자기식의 봉사활동으로 사람들속에 그 이름이 유명하다.

우선 삼계탕의 고유한 진맛이 이곳 식당의 첫번째 매력이다. 삼계탕은 장생불로약으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개성 고려인삼과 대추, 밤, 은행 등 건강에 좋은 열매들, 통닭과 찹쌀을 가지고 만든 민족음식으로서 예로부터 우리 인민들속에서 으뜸가는 보약으로 일러오고있다.

식당에서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조리법을 그대로 계승하여 삼계탕의 고유한 맛을 잘 살려내고있다.

이곳에서 만드는 삼계탕맛의 골자는 국물에 있다.

삼계탕을 전문으로 만들고 있는 조리사 최미화는 인삼과 각종 약재맛 그리고 닭고기의 달큰한 맛이 하나로 어울려 국물에 충분히 우려나올 때라야 삼계탕고유의 감미로운 향기와 맛, 약효를 잘 살렸다고 말할수 있다고 하면서 중닭(일명 약닭)과 3년생인 개성고려인삼을 주원료로 하고있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삼계탕은 음식이지 약이 아니다. 약재맛이 너무 세면 음식의 맛을 떨굴수 있다. 음식의 감칠맛을 살리면서도 보약이 되는 명음식이 바로 보양음식이라고 할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곳 식당에서는 손님들의 체질과 건강상태에 따라 보양삼계탕, 엄나무삼계탕, 오갈피삼계탕, 십전대보삼계탕, 양삼탕, 전복삼계탕, 오골삼계탕, 록용삼계탕, 동충하초삼계탕, 구기자삼계탕 등도 만들어 봉사하고있다.

조리사들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조리법들을 계승하고 여기에 과학적인 조리기술을 적극 탐구적용하여 삼계탕을 계속 발전시켜나가고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삼계탕들은

손님들속에서 수요가 높다.

그중에서도 바다의 《인삼》으로 유명한 해삼이 들어간 양삼탕과 원기를 돋구는데서 신기한 약재로 알려진 십전대보환이 들어있는 십전대보삼계탕 그리고 동충하초삼계탕이 특별히 수요가 높다고 이곳 책임자 리은경은 말하였다.

식당에서는 삼계탕과 함께 그와 잘 어울리는 여러가지의 반찬과 인삼술을 곁들여 봉사하고있는데 음식의 맛을 더욱 살리고있다. 그리고 인삼약밥과 인삼차, 인삼무침, 버섯약밥, 전복약밥 등 건강증진에 좋은 민족로리들과 수십가지의 다양한 로리들을 봉사하고있다.



록용삼계탕



해삼삼계탕



오갈피삼계탕



식당의 매력이라고 할 때 손님들은 두번째로 탕그릇을 꼽는다.

음식의 맛은 조리기술에도 관계되지만 담는 그릇에도 중요하게 기인된다고 조리사들은 말하고있다. 식당에서는 사문석으로 만든 탕그릇을 사용하고있다. 이 그릇은 보온이 비교적 오래며 건강에 좋은 음이온을 내보내는 특징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삼계탕의 약효를 높이는데 아주 효과적이다.

하기에 이곳 삼계탕에 반한 사람들이 음식을 주문하는 경우에는 꼭 탕그릇에 담은 음식그대로를 주문하고있다.

세번째로 식당의 매력은 봉사환경에 있다.

식당에 들어서면 민족적향취와 정서가 그대로 안겨온다. 박우물과 나무절구, 독과

키를 형상한 장식물들과 울바자 위에 올라 해를 치는 닭의 모습, 대문안에 펼쳐진 민족적형식의 목재건물 등은 우리 민족고유의 전통적인 생활풍습을 잘 반영하고있다.

목재건물에 잘 어울리는 《새》들의 지저귂소리는 마치도 식당이 아니라 대자연에 들어온듯한 신선한 느낌을 준다.

네번째로 꼽는 식당의 매력은 접대원들의 친절함 봉사성이다.

식당에서는 접대원들이 손님들에게 최대의 만족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있다.

오늘 삼계탕식당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도 그 이름이 널리 알려져있다.

글 강소현
사진 림승진

로 화 가 들

- 국제로인의 날을 맞으며 -

《매일 흔적을 남기고싶다》

중구역 오탄동 17인민반에 살고있는 강영철로인은 매일 아침 대동강반에 아침운동을 나간다. 다른 로인들과 구별되는것이 있다면 가방을 들고 나가는것이다. 그의 가방에는 속사종이와 연필이 항상 준비되어있다.

물고기잡이와 걷기운동을 하는 로인들, 열심히 공부하는 젊은이들, 아름다운 강반의 각이한 모습들이 그의 속사종이에 옮겨지고있다.

《여생에 매일 흔적을 남기고싶다.》라고 강영철로인은 말하였다.

그의 속사는 매 대상의 특징을 잘 반영한것으로 하여 나무랄데가 없다. 알고보니 그는 1989년 광복거리건설에 참가하여 100여점의 속사를 하였으며 그것은 후에 작품집으로 출판되었다. 생활반영이 진실한 그의 작품집은 미술에 뜻을 둔 학생들이 지금도 즐겨 참고하고있다.

그는 공훈예술가로, 어느한 창작기관의 책임 일군으로 임명된 후에도 속사를 멈추지 않았다. 년로보장을 받고 집에 들어온 후에도 모란봉, 금강산 등 조국의 명승지들을 편담하면서 아름다운 자연을 화폭에 담았다.



강영철로인은 오늘도 새 작품창작에 여념이 없다.

그중에서도 모란봉을 반영한 그림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모란봉의 올밀대, 칠성문, 애련정 등 각이한 곳에서 그렸는가 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서로 다른 모습들을 세련된 필치로 형상하였다.

뿐만아니라 송화거리, 화성거리, 림홍거리를 비롯하여 새로 일떠선 인민의 리상거리들, 새 거리에서 좋아라 뛰노는 아이들의 모습, 산뜻한 교복을 입고 거리를 오가는 학생들의 모습도 그림에 담았다.

유화의 독특한 화법과 개성적인 기법으로 그린 그림들은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그는 말하였다.

《후대들이 나의 작품들을 보면서 조국이 어떻게 비약했는가를 알게 된다면 더 바랄것이 없다. 그래서 매일 조국의 모습을 화폭에 담는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년로보장을 받은 후 하루하루가 어떻게 흐르는지 모르겠다.》라고 중구역 외성동 51인민반에서 사는 박영철로인은 말하였다.

어느한 창작기관에서 유화창작단 단장으로 사업하다가 은퇴한 인민예술가인 박영철로인은 매일 그림을 창작하고있다.

수많은 그림이 벽면들에 걸려있는 그의 집은 미술박물관을 방불케 한다.

올해 봄계절에만 해도 그는 30점의 미술작품을 창작하였다.

어떤 날은 새벽까지, 또 어떤 날은 밤을 새우면서 창작한 한점한점의 작품들은 다 개성이 있고 깊은 여운을 주는것으로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걸음을 옮길수 없게 한다.

전문가들도 그의 작품을 보고는 《모든 그림들이 3차원적이다. 사실 미술작품에서 립체성을 보장한다는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확실히 박영철 선생의 화법은 독특하다.》라고 평하였다.



박영철로인(오른쪽)은 아들과 자주 창작토론을 하고있다.

화판앞에 서면 자만을 모르고 늘 새롭게 시작한다는 립장에서 진지하게 창작에 립하는것이 로화가의 특징이다.

그는 현실을 보고 대하는데서와 색을 쓰는 문제에 대하여 미술창작을 하는 아들과 자주 의견을 나누고있다.

가끔 여러 창작기관의 창작가들앞에서 초빙

강의를 할 때에도 그는 허심한 태도를 보여주곤 한다.

하기예 그의 그림은 매번 다른 사람이 그린것처럼 새로운감을 주고 있다.

동년배들은 제13차 세계청년학생 축전 국제미술전람회와 국가미술전람회들에서 여러 차례 1등을 한 권위자가 다르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다.

박영철로인은 《많은 사람들이 여생을 자식들의 공대를 받으며 편안히 살아도 되겠는데 누구보다 바쁘게 산다고 이야기할 때면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나는

젊어지는 조국의 모습을 조금도 보태지 않고 그대로 화폭에 옮겨 세상사람들에게 보여주고싶다.》라고 기자에게 말하였다.

로화가들은 미술창작을 여생의 《직업》으로 여기고 창작활동을 벌리고있다.

글 엄향심, 사진 김영호



상 식

민속명절-추석

추석은 가을저녁이라는 뜻을 가진 말로서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가을철의 달밝은 보름날을 이르는 말이다.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추석을 풍년농사의 기쁨을 즐기며 돌아간 조상들을 위하여 지성을 표시하는 명절날로 쇠었다.

추석명절의 첫 의례는 조상의 무덤을 돌아보는것이였다.

우리 인민은 한해 농사를 다 짓고 가을걷이를 앞둔 추석날에 햅곡식으로 음식을 만들어 조상의 무덤을 찾는것을 웅당한 도리로, 풍습으로 여겨왔다.

추석날이면 사람들은 명절옷차림을 하고 산으로 올라 묘와 그 주변에 여름내껏 무성하게 자란 잡초를 뽑고 잔디를 일매지게 깎아주는 벌초를 하였으며 장마철때 패인 곳이 있으면 메꾸기도 하고 무덤우에 흙을 덮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네뛰기, 바줄당기기, 씨름 등 여러가지 다채로운 민속놀이로 명절의 하루를

즐기였다.

풍요한 가을철의 추석날에 만들어먹는 음식은 그 가지수도 많고 이채로왔다. 추석음식은 햅곡식으로 만든 술과 떡류, 국과 당과류 등이다.

올해 추석은 10월 6일이다.

* * *



고유한 조선춤동작과 《조선민족무용기본》

동포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해외에서도 명절이나 휴식일은 물론 기쁜 일이 생길 때면 한데 어울려 흥겨운 조선춤가락을 펼쳐놓곤 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그려보며 이렇게 글줄을 또다시 이어가려고 합니다.

언제인가 피바다가극단 조선무용연구소 소장 남수향을 만나 취재하는 과정에 우리는 《조선민족무용기본》이 국가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선민족무용기본》은 우리 민족이 세대와 세대를 거쳐 창조하고 계승해온 여러 종류의 무용과 현대에 와서 인민의 요구와 지향을 반영한 춤동작들 가운데서 민족적정서와 특징이 강한 춤동작들을 정립체계화한 민족무용의 집합체입니다.



《조선민족무용기본》은 2017년 10월 국가비물질문화유산 제72호로 등록되었다.

사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춤가락들은 그 역사적 변천과정과 활동범위로 하여 체계적으로 정립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이 사업을 스스로 맡아 완성하여 조선춤의 독특한 매력을 세상에 널리 알린 예술인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최승희였습니다.

해방전 그는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긴 망국민의 처지에서조차 녀성의 몸으로 여러 나라를 순회하면서 조선춤으로 민족의 기개와 정신을 남김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민족의 춤을 세상에 과시하려는 최승희 선생의 노력이 얼마나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는지 어느한 출판물에는 《최승희는 세계의 무용애호가들에게 조선춤을 영원히 잊지 못하도록 기여한 공이 크다.》라는 글이 실리었다고 합니다.

최승희는 해방후 조선무용연구소 초대소장으로 사업하면서부터 나라의 방방곡곡을 다니며 민속무용, 무당춤, 궁중무용 등을 깊이 파고들어 거기에서 민족적정서가 강하고 우아한 춤가락들을 하나하나 찾아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와 전후복구건설시기에도 조선무용연구소의 활동은 줄기차게 이어져 1957년에 이르러 마침내 《조선민족무용기본》이 국보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럼 국가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조선민족무용기본》에 대해 보기로 합시다.

무용기본은 크게 기초적인 춤동작과 소도구를 리용한 춤동작으로 나누어져있습니다.

기초적인 춤동작에는 걸기, 뿌리치기, 구르기 등 17개의 동작과 기교동작들이 있습니다.

조선춤의 중요한 특징은 팔의 놀림이 곡선형태로 진행되는것입니다. 조선춤은 상하체의 결합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것으로 하여 그 립체감이 살아나는것이 또 하나의 특징으로 됩니다.

개 천 시

개천시는 평안남도북부 청천강중류와 대동강중류에 위치하고있다.

이 지역은 1413년부터 개천군으로 불리웠다. 그 이전까지는 련주(여러 고을이 이어져있는 고을이라는 뜻), 익주(평양성을 호위하는 고을이라는 뜻), 조양(아침해빛이 잘 드는 양지바른 곳이라는 뜻), 개주(큰 강이 있는 고을이라는 뜻)라고 불리왔다.

고을이름에서 《주》자를 정리하면서 개주를 개천으로 고쳤다. 개천은 큰 강이 있는 교장이라는 뜻이다. 대동강, 청천강과 같은 큰 강사이에 있는 지역이므로 개천이라고 하였다.

1990년에 개천시로 개편되었다.

* * *

무용기본에는 부채, 탈, 칼, 장고, 수건을 비롯하여 우리 인민이 즐겨 쓰던 생활도구들을 무용소도구로 리용하는 방법과 함께 음악, 장단에 대해서도 밝혀져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조선민족의 고유한 춤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있습니다. 특히 고구려무덤 벽화들에 그려진것처럼 긴 팔소매가 아래로 드리워져있는 무용수들의 모양만 보아도 조선춤이 팔을 부드럽게 끌어올리거나 내리는 동작을 위주로 했다는것을 잘 알수 있습니다.

《조선민족무용기본》에 토대하여 자기 발전의 길을 걸어온 우리의 무용예술은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그 나날 국보적가치를 가지는 많은 무용작품들과 자모식무용표기법이 창조되었으며 대외공연활동에서도 성과가 이룩되었습니다.

동포여러분, 오늘도 《조선민족무용기본》은 끊임없이 높아가는 우리 인민들의 미학정서적 요구에 맞게 무용예술을 더욱 발전풍부화시켜나갈수 있는 토대로 되고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앞으로도 《조선민족무용기본》과 같이 귀중한 문화적재보를 끊임없이 창조하고 빛내여갈것입니다.

글 연옥

유모아 입만 벌리지 않았더라면

한사람이 강가에서 낚시대를 드리우고있는데 웬 녀인이 그옆에 와서 쉬임없이 말을 하는것이였다.

낚시꾼이 몹시 시끄러워하는참에 물고기 한마리가 물려나왔다.

수다스러운 녀인이 또 말을 하였다.

《물고기가 정말 불쌍하군요. 인차 죽어버리겠지요?》

낚시꾼은 그 물고기를 손에 들고 녀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정말 불쌍합니다. 부인 입만 벌리지 않았더라면 무사했을텐데.》

* * *

첫 고대국가를 세운 단군



마침내 반만년전인 B.C. 30세기초에 우리 나라 역사상 첫 고대국가를 세웠다. 이때 세운 나라의 이름을 옛 기록에서는 《조선》(고조선)이라고 하였고 그 건국자를 《박달임금》이라고 하였다. 후세에 와서 《박달임금》을 한자로 옮겨 쓰면서 《단군》이라고 하였다.

단군은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고 국력이 강화되자 주변세력들을 통합하면서 령토를 넓혀나갔다.

단군이 세운 고조선은 수천년동안 존재하면서 넓은 지역을 차지한 아시아의 강대한 국가로 발전하였다.

단군은 죽은 후 자기가 살던 평양에 묻히었다. 단군이 동방에서 이른시기에 국가를 세움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는 원시시대가 끝나고 국가시대, 문명시대에 들어서게 되었다. 단군에 의한 고조선의 성립은 우리 력사에서 국가성립의 시원을 마련한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하기에 력대로 내려오며 우리 선조들은 단군을 숭배하면서 단군의 후손임을 대대손손 자부해왔다.

그러나 일제의 악랄한 책동으로 하여 지난 시기 단군과 고조선의 력사는 심히 외곡되고 단군은 실재한 인물이 아니라 신화적인 존재로 치부되었었다.

일제와 사대주의자들에 의하여 무참히 외곡되었던 단군과 고조선의 력사와 관련한 문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단군은 지금으로부터 반만년전에 오늘의 평양에 수도를 정하고 동방에서 처음으로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다.

단군이 태어나고 성장하던 때는 원시사회 말기 부유해진 특권층과 공동체의 일반성원들 사이의 빈부차이가 커지고 그 대립이 격화되어가던 시기였다.

단군은 어려서부터 활쏘기와 창쓰기, 칼쓰기 등 무술을 련마하였으며 자연과 사회의 리치를 알기 위해 애썼다. 그 과정에 원시공동체사회가 안고있는 일련의 심각한 사회정치적문제들을 해결할 원대한 포부도 품게 되었다. 그후 아버지의 뒤를 이어 추장이 된 단군은 원시적인 정치기구를 부족들사이의 대립을 억제하기 위한 폭력기구로, 보다 강력한 권력기구로 점차 개편해나갔다.

이러한 사회적변혁에 기초하여 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단군은



고구려사람들의 용맹

예로부터 우리 나라에는 범이 많았다.

선조들은 범을 흔히 호랑이라고 불렀다.

이마에 임금왕자가 새겨져있는 황갈색의 조선범은 매우 사납고 용맹한것으로 유명하였다. 도처에 범이 와글와글하였던 옛 시기에 호환으로 하여 그 피해가 막심하였다.

국가적인 목장이 폐지되는 일이 부지기수였고 인명피해 또한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우리 나라 속담에 범과 관련된 속담이 많은것은 이러한 사정과도 관련된다.

지혜롭고 의지가 강한 우리의 선조들은 호환을 극복하기 위해 언제나 용감하였다.

고구려사람들은 물론이고 《발해사람 셋이면 호랑이를 때려잡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의 조상들은 호랑이를 쉽사리 잡았다.

우리 나라 력사기록에 의하면 범과의 싸움을 벌인 첫 사람들은 고구려사람들이었다고 전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문헌기록과 함께 무덤벽화들에도 반영되어있다.

집안춤무덤, 장천1호무덤, 덕흥리벽화무덤, 약수리무덤벽화들에 있는 범사냥그림들이 바로 그것이다.

고구려사람들은 매해 3월 락랑언덕에 모여 국가적인 사냥경기를 하였는데 이 과정에 무술이 능하고 용맹과 담력이 뛰어난 인재를 뽑곤 하였다고 한다.

당시 사냥경기는 무사들이 무술을 닦고 담력을 키우는것과 함께 자기들이 소유한 무술재주와



용맹성을 시위하는 중요한 마당이였다.

고구려에서는 군사를 강화하는데서 사냥경기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널리 장려하였다.

* * *

의하여 비로소 새롭게 밝혀지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단군관계유적들을 다 복구하고 보존하도록 하시였으며 단군문제해명의 기본열쇠인 단군릉발굴을 발기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이끌어주시였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 평양시 강동군에 있는 단군릉에서는 단군의 유골이 발견되고 단군이 반만년전에 실재한 인물이라는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단군릉을 시조릉답게 새로 개건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밝혀주시였다.

하여 단군릉은 1994년에 훌륭히 개건되었다.

단군릉에서는 해마다 10월이 오면 개천절행사가 진행되고있다.

글 임향심, 사진 리영철

세계지질공원

백두산지국 (2)

향도봉화산

향도봉화산은 장군봉화산에서 북동쪽으로 0.98km 떨어진 천지칼데라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향도봉화산은 백두산의 봉우리들가운데서 세번째로 높은 봉우리이며 해발높이는 2,712m이다.

향도봉화산은 백두산화산분출 4단계에 조면영안암질암장이 분출하여 형성된 화산체이다. 화산체의 밑부분에는 북포태산층에 해당하는 조면암, 조면영안암이 천지물면우의 440m수준까지 쌓여있다.

남동방향의 방사상단층과 첫번째 고리모양단층이 사귀는 점에서 10여차례에 걸쳐 엮바뀌어 진행된 조면영안암질암장의 크지 않은 폭발성분출과 흐름성분출에 의하여 두께가 76m인 향도봉층이 형성되었다.

향도봉화산의 꼭대기에는 백색부석이 1~15m의 두께로 덮여있다.

함몰단계에 천지쪽이 떨어져내려 급경사를 이루는 절벽들이 생겨났는데 그 결과 향도봉층이 발달하는 절벽경사는 75~80°로 되고 북포태산층이 발달하는 절벽경사는 45~65°로 되었다. 향도봉의 천지바깥쪽의 경사는 25~30°로서 장군봉의 천지바깥쪽의 경사보다 급하다.



향도봉화산

향도봉화산은 폭발성분출산물인 화산쇄설암층들과 흐름성분출산물인 치밀한 용암흐름체들을 하나의 지질자름면에서 볼수 있는것으로 하여 백두산화산의 분출과정을 연구하는데서 의의가 큰 지질유적이다.

단결봉화산

단결봉화산은 하나의 밋밋한릉선으로 해발봉화산과 제비봉화산사이에 길게 뻗어있는 해발높이 2,661m인 화산이다.

천지물면으로부터 416m수준까지 북포태산층이 쌓이고 그우에 북남방향의 방사상단층과 첫번째 고리모양단층이 사귀는 점인 단결봉정점부근에서 조면영안암암장의 크지 않은 폭발성분출과 흐름성분출이 6차례 엮바뀌어 진행되어 51m의 두께를 가진 향도봉층이 형성되었다.

단결봉의 꼭대기에서 백색부석층의 두께는 최고 8m정도이다.

단결봉화산의 바깥경사면에는 백두산형성제5단계분출산물인 류문암질용암이 있다.

천년기대분출후 백두산화산체의 함몰단계에 천지쪽이 떨어져내려 급경사를 이루었는데 이 절벽에서 향도봉층이 발달하는 절벽경사는 85°정도이고 천지바깥쪽의 경사는 20~25°이다.



단결봉화산

단결봉화산은 백두산의 화산지형과 용암의 팽각과정에 대한 연구에서 의의가 있다.

해발봉화산

해발봉화산은 해발높이가 2,719m로서 백두산의 봉우리들가운데서 두번째로 높은 봉우리이다.

조면암과 조면영안암으로 이루어진 북포태산층이 천지물면으로부터 418m의 높이까지 쌓인 후에 소규모적인 폭발성분출과 흐름성분출이 11차례 엮바뀌어 진행된 결과 두께가 107m인 향도봉층이 형성되었다. 이 층의 우에는 두께가 2~5m인 백색부석층이 쌓여있다.

해발봉화산에서 화산분출지점은 남남동방향의 방사상단층과 첫번째 고리모양단층이 사귀는 해발봉정점부근에 있었다. 이 지점에서 휘발성분이 많은 류문암조성의 용암이 백두산의 남쪽비탈면을 따라 흘러내렸는데 지금도 해발봉출기에서 이 용암의 흐름무늬를 17개나 찾아볼수 있다.

천년기대분출후 백두산화산체의 함몰단계에



해발봉화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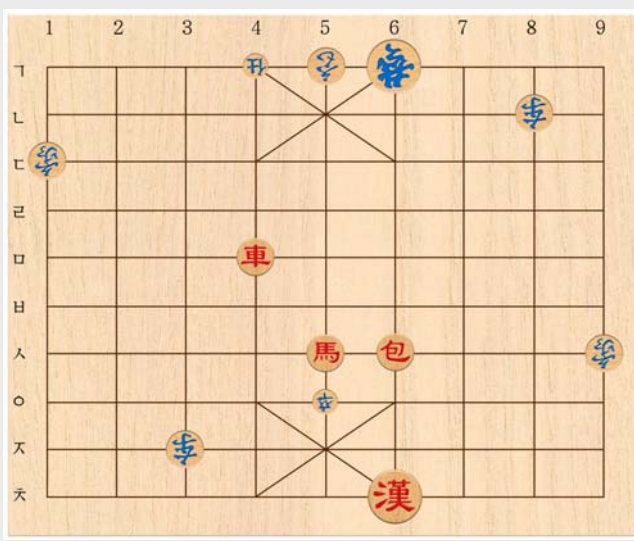
천지쪽이 떨어져나가 경사가 급한 절벽을 이루었는데 이 절벽에서 향도봉층이 발달하는 벼랑의 경사는 65~75°이고 북포태산층이 발달하는 벼랑의 경사는 45~60°이며 천지바깥쪽의 경사는 13~22°이다.

해발봉화산은 류문암질용암의 흐름특성에 대한 연구와 백두산화산의 천년기대분출후 지형변화과정에 대한 연구에서 의의를 가진다.

* * *



장기수풀이 (34)



장기격언

대범상

량말에 상 또는 량상에 말인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런 쪽들이 호상 겹마, 겹상을 차고 공격할 때면 대단한 위력을 나타내는데 어떤 때에는 상대방의 차까지도 대범상의 결합전술에 어쩔수 없게 되는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이 격언은 대범상때의 수쓰기요리를 터득하는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있다.

장기수풀이 (33)에 대한 답

- 1) ㄹ2차 12, ㄷ5포 15, 12차 15, ㄷ4말 15, ㄹ4차 ㄹ6, ㄷ7줄 ㄹ6, 14포 14, 《장훈》
- 2) ㄹ2차 12, ㄷ5포 15, 12차 15, 15사 15, ㄹ4차 14, 15사 15, ㄷ4차 14, 《장훈》

붉은색쪽이 먼저 써서 푸른색쪽을 이겨야 한다.



잡지 《금수강산》은 인터넷 《조선의 출판물》 홈페이지에
조선어, 로어로 게재됩니다.

<http://www.korean-books.com.kp>

주 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전자우편: flph@star-co.net.kp

